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Vol. 07

*Great challenge
for our future*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혁신!



CONTENTS

대학입학전형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2025학년도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학생부위주전형 준비방법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선택요령

입학정보

진로진학정보 얻기
수시·정시모집 원서접수 전 체크포인트

전공안내

기초학문분야 | 첨단분야

학습지원

고교생 연간학습전략
성격유형별 진로탐색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혁신!

충북대학교는 혁신성장을 위한 실용 학문과 미래 가치 창출의 원천인
기초 학문의 균형 발전을 이룸으로써 국립대학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성과 융합을 지향하는 교육을 추구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AAA
All About Admissions



Great challenge
for our future





CONTENTS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opyright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본 책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에는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충북대학교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I .대학입학전형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08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10
2025학년도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15
학생부위주전형 준비방법	28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선택요령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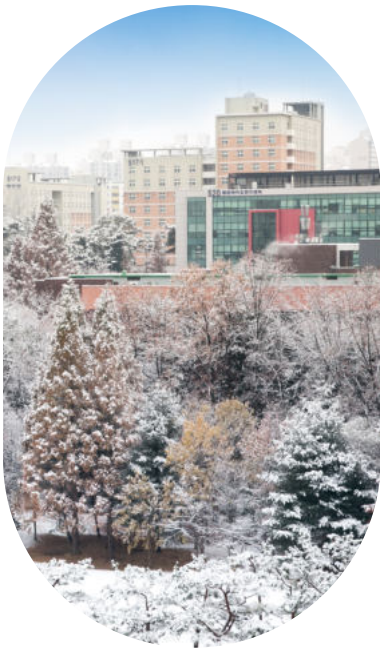
III .전공안내

[기초학문분야] 인문학	66
[기초학문분야] 물리학	68
[첨단분야] 컴퓨터과학	70
[첨단분야] 바이오헬스	75



II .입학정보

진로진학정보 얻기	48
수시·정시모집 원서접수 전 체크포인트	52



IV .학습지원

고교생 연간학습전략	80
성격유형별 진로탐색	84

1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I. 대학입학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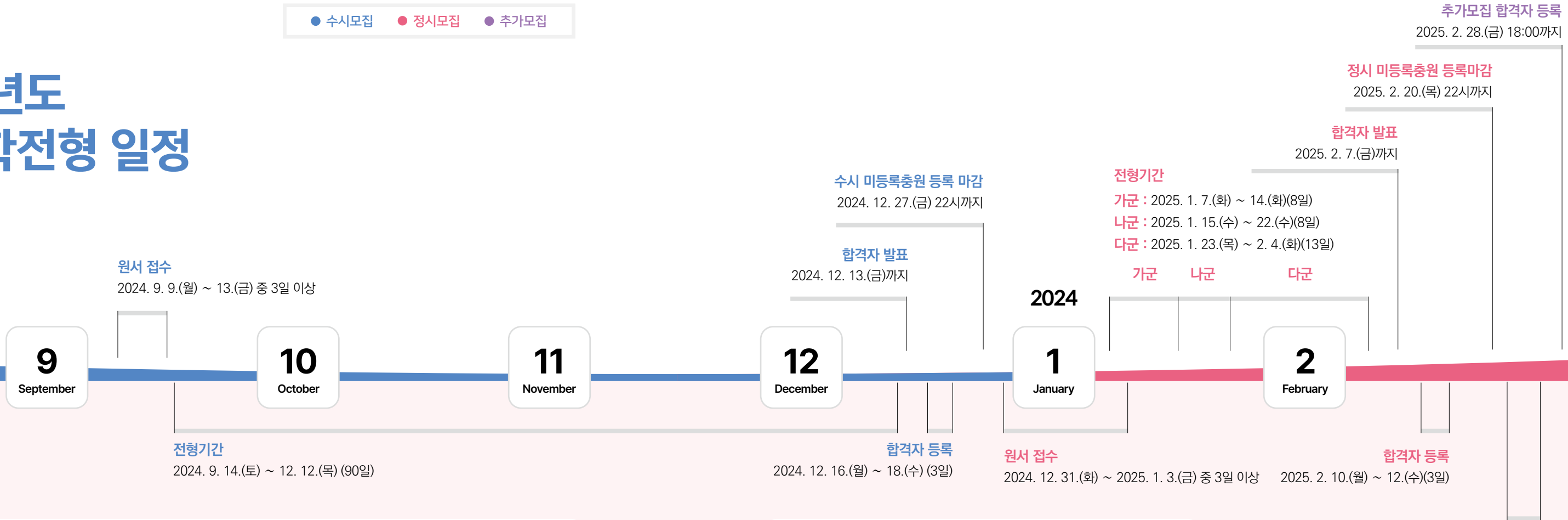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08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10
2025학년도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15
학생부위주전형 준비방법	28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선택요령	38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추가모집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4. 9. 9.(월) ~ 13.(금) 중 3일 이상
2024. 9. 14.(토) ~ 12. 12.(목) (90일)
2024. 12. 13.(금)까지
2024. 12. 16.(월) ~ 18.(수) (3일)
2024. 12. 26.(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2024. 12. 27.(금) 22시까지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형일,
합격자 발표, 등록

등록 기간

2025. 2. 21.(금) ~ 28.(금)
※ 합격통보마감
2025. 2. 28.(금) 18: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2025. 2. 28.(금) 22시까지

추가모집 원서접수·전형·합격 통보 마감·등록
2025. 2. 21.(금) ~ 28.(금) 22시까지

정시모집

원서 접수
정시 가군
정시 나군
정시 다군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정시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24. 12. 31.(화) ~ 2025. 1. 3.(금) 중 3일 이상
2025. 1. 7.(화) ~ 14.(화)(8일)
2025. 1. 15.(수) ~ 22.(수)(8일)
2025. 1. 23.(목) ~ 2. 4.(화)(13일)
2025. 2. 7.(금)까지
2025. 2. 10.(월) ~ 12.(수)(3일)
2025. 2. 19.(수)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2025. 2. 20.(목) 22시까지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2024년 11월 14일(목) / 성적통지일: 2024년 12월 6일(금)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전체 모집인원 감소, 전년도 선발 기조 유지
- + 수도권은 수능 위주, 비수도권은 학생부교과 위주
- +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른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 증가
- +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 증가
- +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반영



전체 모집인원 감소·수시모집 비율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

2025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한 340,934명이다. 이 중 수시모집 비율은 79.6%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수시모집 비율은 전년 대비 0.6%증가하여 79.6%이고, 정시모집 비율은 0.6%감소하여 20.4%로 소폭 변동이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정시모집 비율이 줄면서 전체 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모집시기별 모집인원은 비율의 증감과는 별개로 전체 모집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수시모집 551명, 정시모집 2,811명이 감소하였다.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단위: 명, 2023. 4. 20. 기준)

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전년대비 증감		
				수시	정시	합계
2025학년도	271,481 (79.60%)	69,453 (20.40%)	340,934	-551 (0.6%)	-2,811 (-0.6%)	-3,362
2024학년도	272,032 (79.00%)	72,264 (21.00%)	344,296	-410 (1.0%)	-4,418 (-1.0%)	-4,828
2023학년도	272,442 (78.00%)	76,682 (22.00%)	349,124	10,064 (2.3%)	-7,493 (-2.3%)	2,571
2022학년도	262,378 (75.70%)	84,175 (24.30%)	346,553	-4,996 (-1.3%)	4,102 (1.3%)	-894
2021학년도	267,374 (77.00%)	80,073 (23.00%)	347,447	-1,402 (-0.3%)	983 (0.3%)	-419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모집시기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유형을 살펴보면,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전형(86.0%), 정시모집은 수능위주전형(91.9%)으로, 2025학년도에도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의 선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단위: 명)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인원		증감 (C)=(A)-(B)
		2025학년도 (A)	2024학년도 (B)	
수시	학생부위주 (교과)	154,475(56.9%)	154,121(56.7%)	354
	학생부위주 (종합)	78,924(29.1%)	79,358(29.2%)	-434
	논술위주	11,266(4.1%)	11,214(4.1%)	52
	실기/실적 위주	22,531(8.3%)	22,539(8.3%)	-8
	기타	4,285(1.6%)	4,800(1.8%)	-515
수시 소계		271,481(100.0%)	272,032(100.0%)	-551
정시	수능위주	63,827(91.9%)	66,300(91.7%)	-2,473
	실기/실적 위주	5,224(7.5%)	5,515(7.6%)	-291
	학생부위주 (교과)	174(0.3%)	228(0.3%)	-54
	학생부위주 (종합)	183(0.3%)	162(0.2)	21
	기타	45(0.1%)	59(0.1%)	-14
정시 소계		69,453(100.0%)	72,264(100.0%)	-2,811
총합계		340,934	344,296	-3,362

수도권은 정시 수능위주, 비수도권은 수시 학생부(교과)위주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 모집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65%, 비수도권 88.9%로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정시 모집인원은 수도권 35.0%, 비수도권 11.1%로 수도권 대학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정시모집의 전체 모집인원은 줄었으나 수도권 대학에서는 여전히 정시 선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정시까지 고려해 입시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권역별 모집인원 (단위: 명)

권역별 모집인원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수도권	75,121	10,725	85,846 (65.00%)	42,701	3,579	46,280 (35.00%)	132,126
비수도권	167,763	17,872	185,635 (88.90%)	22,934	239	23,173 (11.10%)	208,808
합계	242,884	28,597	271,481 (79.60%)	65,635	3,818	69,453 (20.40%)	340,934

수시모집의 경우 비수도권은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수도권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다. 정시모집의 경우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권역별 수시모집 전형유형별 비교 (단위: 명)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실적	기타
수도권	27,806 (32.39%)	37,867 (44.11%)	9,778 (11.39%)	8,241 (9.6%)	2,154 (2.51%)
비수도권	126,669 (68.26%)	41,057 (22.12%)	1,488 (0.80%)	14,290 (7.70%)	2,131 (1.12%)

권역별 정시모집 전형유형별 비교 (단위: 명)

2025학년도	수능위주	실기/실적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기타
수도권	43,117 (93.14%)	2,987 (6.47%)	22 (0.05%)	129 (0.28%)	25 (0.05%)
비수도권	20,710 (89.37%)	2,237 (9.65%)	152 (0.65%)	54 (0.23%)	20 (0.09%)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른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 증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계열에 지원 할 수 있도록 수능 선택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수능 미적분·기하, 과학탐구 필수 반영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하였다. 2024학년도에도 일부 대학에서 계열에 따른 선택과목 제한을 완화하였는데 2025학년도에는 17개교가 추가되면서 수험생들의 계열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2025학년도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

구분	전형유형	대학	개교
수도권	학생부교과	서울과기대,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7
	학생부종합	이화여대	1
	논술위주	세종대, 아주대, 이화여대	3
정시모집	수능위주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한양대(ERICA)	17

※ 일부 모집단위에 한하여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는 제외함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 증가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의무에 따라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이 증가하였다.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총 990명 증가하였고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도 전년대비 215명 증가하였다. 반면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전형)은 전년 대비 518명 감소하였다.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단위: 명, 2023. 4. 20. 기준)

권역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합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10,948	26,476	37,424	10,916	25,518	36,434	990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	13,267	—	13,267	13,785	—	13,785	-518
지역인재전형	24,031	—	24,031	23,816	—	23,816	215
소계	48,246	26,476	74,722	48,517	25,518	74,035	687

※ 계약학과 선발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및 지역균형선발 인원 제외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ww.chungbuk.ac.kr

대입전형 학교폭력 조치사항 자율반영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부위주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수능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로 한 대학은 147개교이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21.2)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학전형에 필수로 반영하여야 하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운영대학은 88개교이다.

2025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

전형유형	대학	개교
학생부종합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인교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교대, 국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WSE), 동덕여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송실대, 신한대, 아주대, 안동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원광대, 울산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진주교대, 차의과학대, 청주교대, 총신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POSTECH, 한경국립대, 한국공학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서대, 홍익대	112
학생부교과	가천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광신대, 대전가톨릭대, 덕성여대, 동국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신대, 연세대,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중앙대, 평택대, 한경국립대, 한양대, 홍익대	27
수능위주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국민대, 대전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아신대, 장로회신학대, 전북대, 전주교대, 한양대, 홍익대	21
논술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한양대, 홍익대	9
실기/실적 (체육특기자 제외)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운대, 경일대, 경동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광신대, 국민대, 명지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총신대, 한양대, 홍익대	25
실기/실적 (체육특기자)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벌), 경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군산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전대, 동국대, 동국대(WSE), 동명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원대, 신문대, 성결대, 세종대, 순천대, 순천향대, 송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영남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국립대, 한국교통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라대, 한림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한일장신대, 호서대, 홍익대, 화성과학대	88

2025 학년도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본 기본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 시에는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5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모집 시기	정원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24학년도 모집인원(명)	'25학년도 모집인원(명)	증감
수시	정원내	학생부 종합	①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Ⅰ전형)	436	467	31
			②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Ⅱ전형)	316	321	5
			③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30	13	-17
		학생부 교과	④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891	980	89
	⑤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325	338	13	
	⑥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5	5	-	
	⑦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16	16	-	
	⑧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54	54	-	
	실기/실적	⑨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7	7	-	
		⑩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	15	15	
정원외	학생부 종합	⑪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16	116	-	
		학생부 교과	⑫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41	41	-
	⑬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63	64	1	
	⑭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40	40	-	
⑮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	5	5			
기타	⑯기타(재외국민특별전형)	58	58	-		
계				2,398 (73.0%)	2,540 (77.0%)	142
정시	정원내	수능	⑰수능(정시가군 일반전형)	347	416	69
			⑱수능(정시나군 일반전형)	473	291	-182
			⑲수능(정시가군 지역인재전형)	12	-	-12
			⑳수능(정시나군 지역인재전형)	15	25	10
	㉑수능(정시가나군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	
	실기/실적	㉒실기/실적(정시가군 일반전형)	38	23	-15	
		정원외	수능	㉓수능(정시가군 경제배려대상자전형)	4	-
	㉔수능(정시나군 경제배려대상자전형)			-	4	4
	㉕수능(정시가나군 특성화고출신자전형)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
	㉖수능(정시가나군 농어촌학생전형)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
학생부 교과	㉗학생부교과 (정시가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수시 미충원	수시 미충원	-		
계				889 (27.0%)	759 (23.0%)	-130
합 계				3,287	3,299	12

※ 2025학년도 학생정원조정계획 및 국책사업 선정에 따라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주요 변경 내용

1.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반영방법 변경	•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중 상위 3개 등급합 반영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3개 등급합 반영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사범대학, 약학대학)	• 사범대학: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9등급 이내 • 약학대학: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5~6등급 이내	• 사범대학: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10등급 이내 • 약학대학: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6~8등급 이내
학생부교과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 약학대학: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6등급 이내 • 의과대학 - 의예과: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5등급 이내 - 간호학과: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11등급 이내	• 약학대학: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8등급 이내 • 의과대학 - 의예과: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6등급 이내 - 간호학과: 상위 3개 영역 등급합 12등급 이내

2. 학생부교과성적 반영방법 변경

2024학년도			2025학년도		
학년	계열	반영교과	학년	계열	반영교과
1학년	전 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1·2·3학년	전 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2·3학년	인문계, 예체능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공통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3.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신설

- 지원자격: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모집인원: 15명
- 전형방법: (일괄합산) 실기 80% + 학생부교과 20%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4.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신설

- 지원자격: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입학연도(2025. 3. 1.)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
- 모집인원: 5명
- 전형방법: (일괄합산) 학생부교과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5.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따라 학생부 반영점수에서 감점처리하며, 세부 반영 방법을 모집요강을 통해 공지함



6. 정시모집 군 설정 변경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가군	나군	가군	나군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자율전공학부 융합학과군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수의과대학 융합학과군 바이오헬스학부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자율전공학부

7. 정시모집 수능성적 탐구 가산점 미반영

8. 사회통합전형 모집비율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역인재	
모집인원	모집비율	모집인원	모집비율
340명	10.3%	368명	11.2%
①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②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③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④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⑤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⑥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⑦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⑧ 수능(경제배려대상자전형)		①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②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③ 수능(정시나군 지역인재전형)	

2025 학년도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3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정원내)

1. 모집인원 :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 전형) 467명,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I 전형) 321명,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13명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I 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종합 II 전형	
	sw우수인재전형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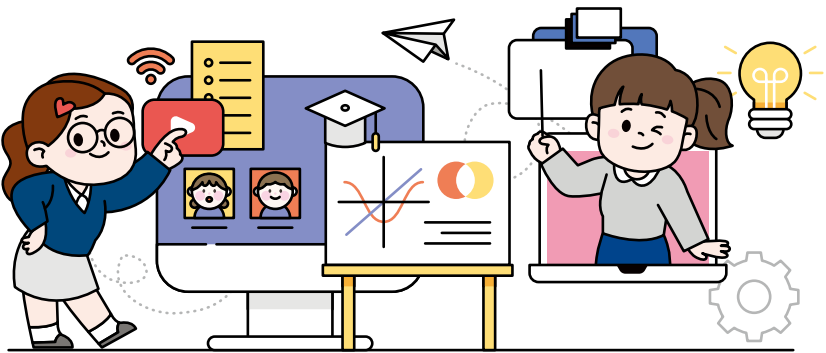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계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전형 sw우수인재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학생부종합II전형					적용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I 전형 학생부종합 II 전형 sw우수인재전형	80점	40점	40점	전문성/사회성/적극성

4.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I 전형)만 해당

-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총족)
-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 전형),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 23p 참고





4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정원외)

1. 모집인원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16명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 2025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2.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부모의 사망(실종), 이혼, 재혼 등의 경우에는 우리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거주요건을 별도 심사(기준은 추후 모집요강에서 안내) ※ 재학기간은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학업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동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중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특수목적고에 일부 재학한 경우 포함)는 지원자격 제외 ※ 재학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또는 주민등록말소) 기록이 있는 경우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사정대상에서 제외됨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계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80점	40점	40점	전문성/사회성/적극성

4.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5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정원내)

1. 모집인원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980명,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338명,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5명,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16명,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54명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충청권(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학생부교과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충청권(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이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보호(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자는 지원 불가
학생부교과 (경제배려대상자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계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지역인재전형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
	국가보훈대상자전형 경제배려대상자전형					적용하지 않음

4.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만 해당

- －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총족
- －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 － 23.p 참고



6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정원외)

1. 모집인원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41명,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64명,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40명, 학생부교과(만학도전형) 5명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특성화고 출신자전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의 2025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 － 우리 대학이 지정한 모집단위별 동일 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 단,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출신자 제외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체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 군경력(병역법 제5조 1항 1호 및 3호에 의한 현역 보충역 의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 ○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2025. 3. 1. 기준 ○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예)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 학생자격 유지기준: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만학도전형	○ 2025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입학연도(2025. 3. 1.)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계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만학도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4.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7

수능 반영 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1. 반영영역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	●	●	●	●	●	●	●	●	●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	●	X	●	●	●	X	●	X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바이오헬스학부	●	●	●	●	●	●	X	●	X	●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	●	●	●	●	●	●	●	X	●
공통	자율전공학부	●	●	●	●	●	●	●	●	●	●

※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시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이상), 한국사)에 응시하여야 함(해당 영역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탐구영역은 반드시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탐구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응시하여야 함(모집단위별로 지정된 탐구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2과목을 응시할 경우 상위 1과목을 반영)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최저학력기준 등급 합에는 미포함됨



2.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I 전형),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충족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학생부종합II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지역경제배려대상자
인문	인문대학	전모집단위	13등급 이내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
	사회과학대학	전모집단위				
	경영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	10등급 이내	—	—
자연	사범대학	전모집단위				
	자연과학대학	전모집단위	13등급 이내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
	공과대학	전모집단위				
	전자정보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전모집단위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	10등급 이내	—	—
	사범대학	전모집단위				
	수의과대학	전모집단위				
	약학대학	전모집단위				
	의과대학	의예과	5등급 이내	4등급 이내	5등급 이내	6등급 이내
		간호학과	11등급 이내	10등급 이내	11등급 이내	12등급 이내
공통	— ¹⁾	바이오헬스학부	13등급 이내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
	본부직할	자율전공학부	—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

1) 바이오헬스학부의 단과대학은 학칙 개정 시 반영

※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반영(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필수 미반영)



8

학생부 반영방법

1.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전형구분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비율(%)		교과성적반영					비교과성적반영			
	1·2·3 학년	교과	비교과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과목별 가산점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학생부교과전형 전체	100%	100%	미반영	석차등급· 이수단위/ 검정고시 합격성적	80점	40점	40점	없음	—	—	—	—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100%	90%	10%	석차등급· 이수단위	18점	2점	16점	없음	출결	2점	—	2점
실기/실적 (실기우수자전형)	100%	100%	미반영	석차등급· 이수단위/ 검정고시 합격성적	20점	10점	10점	없음	—	—	—	—

2. 교과성적 반영교과 및 과목 수

학년	계열	반영교과	과목수
1·2·3학년	전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해당교과 전과목

※ 사회 교과에 한국사 포함 반영

※ 검정고시 합격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검정고시 성적 반영(전 계열 공통)

※ 국외 고등학교 성적: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

※ 교과별 반영과목명 및 자세한 점수 산출 방식은 추후 모집요강에 안내

9

정시모집

1. 모집인원 : 수능(가군 일반전형) 416명, 수능(나군 일반전형) 291명,

수능(나군 지역인재전형) 25명, 수능(나군 경제배려대상자전형) 4명

실기/실적(가군 일반전형) 23명

수능(나군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수시 미충원인원

수능(가군/나군 특성화고졸신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수시 미충원인원

학생부교과(가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수시 미충원인원



2. 지원자격

군	전형명		지원자격
가군	수능	일반전형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5년 5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실기/실적	일반전형	
	수능	특성화고출신자전형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미충원 인원
		농어촌학생전형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미충원 인원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미충원 인원
나군	수능	일반전형	○ 가군과 동일함
		지역인재전형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과 동일함
		경제배려대상자전형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과 동일함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교과(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미충원 인원
		특성화고출신자전형	○ 가군과 동일함
		농어촌학생전형	○ 가군과 동일함

3. 전형방법

> 수능(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경제배려대상자전형, 지역경제배려대상자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실기/실적(일반전형)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계	최저학력기준
			수능	실기		
인문계, 자연계, 공통계	일괄합산	1배수	1,000점 (100%)	—	1,000점 (100%)	적용하지 않음
예체능계(조형예술,디자인)	일괄합산	1배수	500점 (44.4%)	500점 (55.6%)	1,000점 (100%)	
예체능계(체육교육과)	일괄합산	1배수	650점 (72.4%)	350점 (27.6%)	1,000점 (100%)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	계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일괄합산	1배수	80점 (100%)	80점 (100%)	적용하지 않음

4. 수능 반영방법

>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	●	●	●	●	●	●	●	●	●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	●	×	●	●	●	×	●	×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바이오헬스학부	●	●	●	●	●	●	×	●	×	●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	●	●	●	●	●	●	●	×	●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모집단위	●	●	●	●	●	●	●	●	●	●
예체능	전 모집단위	●	●				●	●	●	●	●
공통	자율전공학부	●	●	●	●	●	●	●	●	●	●

※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에 응시하여야 함

※ 탐구영역은 해당 반영 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나,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수능 성적 계산에는 미포함됨

> 반영비율

모집 계열	모집단위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국 어	수 학	영 어	탐 구
인문	전 모집단위	30	20	20	30
자연	전 모집단위	20	30	20	30
예체능	전 모집단위	40	—	20	40
공통	자율전공학부	25	25	20	30

> 반영점수 및 산출방법

- 점수산출 활용지표: (국어, 수학, 탐구)영역별 취득 표준점수, (영어) 절대평가 등급
- 모집계열별 수능 반영점수

모집계열	모집단위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인문계, 자연계, 공통계	해당학과	1,000점	800점	200점
예체능계(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해당학과	500점	300점	200점
예체능계(체육교육과)	해당학과	650점	430점	220점

※ 수능 영역별 기본점수: 기본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 실질반영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자세한 점수 산출 방식은 추후 모집요강에서 안내



2025학년도 학생부위주전형(종합·교과) 준비방법

학생부위주전형 이렇게 준비하세요

음성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임숙



학생부위주 전형은 용어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주요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교과 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 내의 '교과 성적'이 주된 평가요소이고, 학생부종합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통한 학생의 '학교생활'이 주된 평가요소입니다.

2024 대입에서와 마찬가지로 2025 대입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 바로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인데요, 전국 4년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 전형으로는 154,475명(45.3%)을, 학생부종합 전형으로는 78,924명(23.1%)을 선발 합니다. 두 전형을 합하면 2025 대입 전체 전형 중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68.4%를 선발하는 것이고, 2025 대입 수시 모집 내에서만 고려한다면 무려 86.0%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장 기회의 문이 넓은 수시의 학생부위주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교 생활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각 전형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학생부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형별 비율 비교

우선 수시모집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형별 비율이 매우 다릅니다. 수시모집 중에서도 수도권은 학생부종합 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학생부교과 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권역별 수시모집 전형유형별 비교

(단위: 명)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실적	기타
수도권	27,806 (32.39%)	37,867 (44.11%)	9,778 (11.39%)	8,241 (9.6%)	2,154 (2.51%)
비수도권	126,669 (68.26%)	41,057 (22.12%)	1,488 (0.80%)	14,290 (7.70%)	2,131 (1.12%)

※ [참고]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

모집인원의 비율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하는 대학의 권역에 따라 지원 전략을 달리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다년간의 입시 지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같은 권역 내에서도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을 병행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은 항상 더불어 준비해야 한다는 점과 결국 그 준비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2

2025 대입 학생부교과 전형의 특징

2025 대입 학생부교과전형 특징을 정리하면 모집인원의 소폭 증가, 교과 성적 반영방법의 다양화, 수능최저학력기준 변화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부교과전형의 모집인원이 2024 대입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모집인원이 증가하였으나, 수도권의 경우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4 대입과 마찬가지로 대학별 반영교과와 반영방식, 환산방식이 다양하므로 이후 수시 모집요강을 통해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이지만, 일부 강화하는 대학도 있으며, 특히 필수응시영역을 지정하는 모습과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필수응시영역을 폐지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01.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의 다양화로 인한 대학별 환산점수 고려 필요

앞서 말씀드렸듯, 학생부교과전형의 주요 평가요소는 ‘교과 성적’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신 中의 神”은 바로 “내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입에서 내신 성적이라 불리는 교과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교과 성적도 반영 방법에 따라서는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즉, 학생 100명이 아래 표의 7개 대학에 동시에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대학의 학생부교과 전형 반영 방법에 따라 대학별 환산점수를 산출해 보면 100명의 순위가 대학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생부교과전형의 반영 교과, 반영과목,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 비교과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대학별 환산점수에 따른 석차의 유불리는 원서를 접수하면서 지원 대학을 선택할 때 판단할 부분이지, 어느 대학을 지원하게 될지 모르는 수험생들은 모든 고교 생활 동안 각 영역을 골고루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대학별 학생부교과전형 반영방법 예시

대학	계열	반영교과	반영과목		교과	비교과	수능최저학력기준
			공동, 일반 선택	진로선택			
건국대	인문,자연	국,수,영,사, 과,한	해당 교과 전과목	정성평가	100	100	서류평가 30
경인교대	인문,자연	전 교과	전과목	전과목	100		면접평가 30, 진로선택: A=1, B=3, C=5 (등급)
국민대	인문	국,수,영,사	해당 교과 전과목	국,수,영,사	100		공동, 일반선택: 85%, 진 로선택: 15%
	자연	국,수,영,과		국,수,영,과			
동국대	인문	국,수,영,사,한	석차등급 상위 10 과목	정성평가	100		서류평가 30
	자연	국,수,영,과,한					
상명대	인문	전 교과	전과목	3과목	100		진로선택: A=100, B=96, C=90(환산점수)
	자연						
성신여대	인문	국,수,영,사,한	해당 교과 전과목	3과목	90	10 (출석)	진로선택: A=1, B=2, C=4(등급)
	자연	국,수,영,과					
한국외대	인문	국,수,영,사,한	해당 교과 전과목	해당 교과 전과목	100		공동, 일반선택: 등급환 산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 적용 진로선택: A=1, B=2, C=3 등급환산점수
	자연	국,수,영,과	해당 교과 전과목	해당 교과 전과목			

※ [참고]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



> 02.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이 달라 확인 필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시행하는 전국 200개 대학 중에서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73.5%에 해당하는 147개 대학이고, 26.5%에 해당하는 53개 대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3과목 이하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고, 단순 환산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전체적인 교과 성적에서 진로선택과목이 반영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게 설계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반영방법을 확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2024년 5월 말에 발표될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수도권 소재 73개 대학의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 반영사례를 살펴보면,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51개 대학(69.9%),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22개 대학(30.1%)이며,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대체로 성취도에 따른 단순 환산점수를 부여합니다. 고려대, 충남대, 충북대는 성취도 A를 1등급으로 분류하고 성취도 B, C는 성취도별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등급이 아닌 성취도로 평가하는 진로선택과목의 취지를 살려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이야기 했듯, 어떠한 대학에 어떠한 전형으로 지원할지 모르기에 진로선택과목이라고 대충 이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의 영향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도 학생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데다 특히 2, 3학년 때엔 일반선택과목 자체가 많지 않아 대학 내에서도 진로선택과목을 어떻게 평가해야할지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수도권 내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의 경우 교과 정성평가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칫 진로선택과목의 홀대가 자신의 교과 성적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과목을 성실히 이수하는 근본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부교과전형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예시)

대학	반영방법	반영과목	성취도별 환산점(등급)	비고
덕성여대	성취도별 환산점수	반영 교과	A=100점, B=99점, C=97점	3과목, 10% 반영
동국대	정성평가	전과목		
명지대(서울)	성취도별 환산등급	반영 교과	A=1등급, B=2등급, C=4등급	
상명대	성취도별 환산점수	반영 교과	A=100점, B=96점, C=90점	최대 3과목
서강대	성취도별 환산점수 (성취도 비율 고려)	전과목	과목 성취 비율=취득 성취 비율/2 +성취도 하단 성취비율 합계	

※ [참고]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 (일부 변형)





> 03. 수능최저학력기준의 문턱을 넘으면 가능성이 올라간다.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대입 평가 요소로 주요하게 활용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이 대학 내에서도 우수한 성취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대학들은 교과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아마 같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환경에 따라(예를 들어 전학을 간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학생부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학은 각자 대학의 기준에 맞춰 학생들을 최소한으로나마 검증하려 하고 있으며, 교과 정성평가, 면접 평가,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 등이 이에 활용됩니다. 아마 그 중 대학이 선택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일 것이고, 많은 대학에서 이를 학생 평가의 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 기준으로 보면 전체 126,102명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모집하는 인원은 46,628명(37%)입니다. 이에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는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의 주요 전략이며, 따라서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을 위해서는 수능에 대한 꾸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비교(일반전형)

구분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소계	
	대학 수(개교)	모집인원(명)	대학 수(개교)	모집인원(명)	대학 수(개교)	모집인원(명)
서울	28	7,609	19	3,093	47	10,702
인천·경기	18	4,579	30	7,643	48	12,222
강원	6	1,822	7	5,648	13	7,470
대전·세종·충남	15	6,430	20	19,118	35	25,548
충북	7	1,577	9	7,466	16	9,043
대구·경북	13	7,343	14	10,257	27	17,600
부산·울산·경남	13	9,821	16	11,900	29	21,721
광주·전남	13	4,174	16	9,027	29	13,201
전북	4	2,289	6	5,139	10	7,428
제주	1	984	1	183	2	1,167
계	118	46,628	138	79,474	256	126,102

※ 지방캠퍼스는 별도 대학으로 산출함.

※ 한 대학 내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학과와 미적용 학과가 있을 수 있어, 대학 수의 합계는 실제보다 많을 수 있음

※ [참고]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



다만, 아래 충북대학교의 경우처럼 같은 대학 내에서도 단과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다른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희망 대학, 희망 학과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일부 대학, 일부 학과의 경우 아래의 예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응시 영역에서 수능 선택과목 또한 지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희망 대학 및 학과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점검 시 반드시 응시 영역까지 확인한 후에 수능 학습에 돌입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	전형명	모집 단위	전형 방법	모집 인원	수능최저학력기준
충북대	학생부 교과	인문, 자연	교과 100	898	인문·자율전공: 국,수,영,탐/직(1) 중 3개 합 10~12등급 자연:국,수,영,탐(1) 중 수 포함 3개 합 10~12등급 (농업생명환경대,생활과학대, 수의과대, 간호학과는 수학 선택 반영) (일부 학과는 수(미/기)와 과탐 지정) 간호:국,수,영,탐(1) 중 3개 합 10등급 약학,제약:국,수(미/기),영,과(1) 중 3개 합 6등급 수의예:국,수(미/기),영,과(1) 중 3개 합 7등급 의예:국,수(미/기),영,과(1) 중 3개 합 4등급

※ [참고]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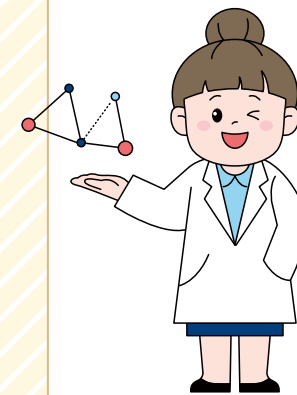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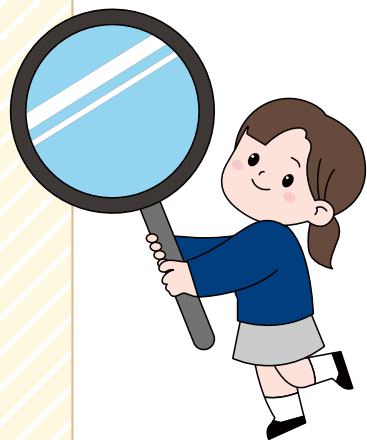
위의 많은 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결국 학생부교과 전형을 잘 준비하기 위한 수험생의 자세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성실히 이수하여 최대한의 교과 성적을 유지하고, 수능최저 학력기준 충족을 위해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지요. 그렇다면, 학생부종합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2025 대입에서의 학생부종합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준비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3 2025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이나 수능최저학력 기준 등을 추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교과 성적은 주로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활용하는데, 학생부교과 전형처럼 정량적인 교과 성적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 결과는 교과 성적 간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평가는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을 통해 교과활동 및 학생의 참여도, 성실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통해 지원자의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평가하고 있기에 학교생활 충실도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실하게 키워왔는지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값값이 전형이라는 등의 오명을 안고 있던 학생부종합전형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대학마다 연구를 통해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학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업역량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학업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	•학업의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탐구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진로역량 자신의 진로와 전공(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공동체역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협업과 소통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성실성과 규칙 준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학생부종합전형은 동일 대학 내에서 전형을 면접형/서류형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류형은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면접형은 서류 평가에 면접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전형으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면접이기에 대학에서 해당 전형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면접형은 학생부 이외에 면접이 중요한 전형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 평가자의 질문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거나 실제 자신이 학습하거나 활동한 내용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을 명료하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므로 고교 생활 동안 발표의 기회를 많이 가져보며 구조적 말하기를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활용하기도 하므로, 희망 대학에 맞춰 면접 대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학	전형명	대학(전형명)
서류 기반 면접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내용 확인, 인성 확인	가톨릭대(잠재능력우수자), 경기대(KGU학생부종합), 광운대(광운 참빛인재 I-면접형), 국민대(국민프런티어), 동국대(Do Dream), 서울과기대(학교생활우수자), 서울대(지역균형), 서울여대(바람인재면접, SW융합인재), 성신여대(학교생활우수자), 숙명여대(숙명인재 면접형), 숭실대(SSU미래인재전형), 인천대(자기추천, 전남대(고교생활우수자 I), 한국외대(학생부종합 면접형) 등
		고려대(일반-계열적합형/학업우수형), 연세대(활동우수형), 서울대(일반) 등

※ [참고]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

> 01. 진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목 선택을 신중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교육과정 선택과 이수를 통해 학생 개인의 특성 및 역량을 정성평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육과정 선택 및 이수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와 관심에 따른 과목 선택이 이루어져야 함이 기본입니다. 간혹 보면 자신의 진로와는 무관하게 등급을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거나 쉽다고 여겨지는 진로선택과목만을 선택하여 조금이나마 편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 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시만을 쫓아서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대학에서의 학습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인문계열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과목 선택에 대한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 자연계열 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수학과 과학 과목을 충실히 이수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공과대학 교수님들께서 고등학교 물리학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얹어 놓고 수업을 하고 싶으실까요? 간호대학 교수님들께서 고등학교 수준의 생물학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싶으실까요? 대학에서 학습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고교에서 충분히 쌓은 후에 대학에 진학해야 함을 분명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단위학교 내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학습하고 싶다면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수업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무조건 이러한 수업을 많이 듣는 것이 평가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업 태도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각 과목마다 기록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등 학생의 강점을 더욱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규과정 이외에 추가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시에는 반드시 개인이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수하는 것이 좋겠지요?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느라 힘겨워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학습을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혹시 과목 선택이 어렵다면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학과에서 제시한 이수 권장과목을 확인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선택과목 안내서 등을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안내 내용인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선택 요령” 또한 꼼꼼하게 읽기를 권합니다.



> 02.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되도록

과목 선택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이후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학습(學習)을 열심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에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시나요? 학생들의 고교 생활을 통해 학생을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학생부교과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일과표 내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꾸준한 학습을 통해 교과 성적을 잘 받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과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목마다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교사들은 보통 1~2회의 지필평가 결과와 2~4가지 영역의 수행평가 결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지필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학습(學習)의 그 의미처럼 잘 배우고 잘 익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배우는 것에만 그치고 그것을 익히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에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수없이 자주 날갯짓을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배우기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혀야 한다는 뜻의 “여조삭비(如鳥數飛)”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 인터넷 강의 등 듣고 보는 것만이 내 공부가 아님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메타인지를 활용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모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따른 평가 요소와 기준들을 파악하고 평가 의도에 맞게 해당 영역들을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특히 탐구를 진행하는 수행평가가 보통 많은데 이는 자료 조사, 토론, 글쓰기, 발표 등이 주를 이룰 것이며 팀끼리 진행하는 협업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제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 수준의 어려운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교과 공부에서 시작한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하여 학습을 추가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며 관련된 자료를 찾고 정리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나간다면 훌륭한 탐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탐구 과정

에서 각종 매체뿐만이 아닌, 도서를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교과 학습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은 다른 교과 또는 다양한 교내활동(자율, 진로, 동아리 등)을 통해 활용하거나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또한 문제의식이 생겨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자신이 학습했던 내용을 떠올려 방안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학습 내용이 몸소 체득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 깊이 있는 학습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교과 내용을 살아 있고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학급에서 욕설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를 본 후, 통합사회 시간에 학습한 기본권과 관련해 자신이 이 친구의 언어를 제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혐오표현 등에 대한 책, 칼럼, 논문 등을 찾아 읽으며 학급 내 욕설 제한 기사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캠페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이후 기본권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인권, 동물권까지 호기심을 확장해 탐구를 이어갔고 지금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여 소수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해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행한 캠페인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이 학생의 활동 소감을 들으며 꽤나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학생이 교과서에서 학습한 ‘기본권’이라는 개념은 결국 소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전공까지 이어져 멋지게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마무리 하면서...

학생부위주 전형은 지금껏 말씀드렸듯, 어떠한 전략을 필요로 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고교 생활을 성실히 한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성실히 학습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시작한 전형이기 때문에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전공을 수학하기 위한 기초 학력을 다지기 위해 고교 생활 동안 성실히, 충실히 노력해 보자”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인아님의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라는 책이 있더군요. “태도가 경쟁력이다.”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저자의 이야기를 접하며 우리 아이들의 고교 생활도 이와 닮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 입시라는 관문에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만의 무기들을 갈고 닦는 “여조삭비(如鳥數飛)”의 자세를 명심하며, 대학이 여러분을 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실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나가길 응원합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선택요령

논산대건고등학교 교사 이정현



1. 고교학점제란?

-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집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학생맞춤형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합니다. 직업세계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찾게 함으로써 진로 개척 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고교학점제(2022 개정 교육과정)는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2024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선택형 교육과정)과 대학입학전형

- 2015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운영 취지와 동일하게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과 고교학점제의 점진적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교과 교육과정의 편성은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개설 가능한 선택 과목을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선정하고 학교의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간 공부해야 할 교과목 중 일부를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맞게 개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 1)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 2)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 수준이 학업 및 진로 역량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 3)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가 평가됩니다.
 - 4).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보통교과 중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교과목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정성적으로 평가됩니다.

3. 진로선택과목

-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선택과목이 개설됩니다.
- 고교 교육과정 진로선택과목 평가 방법
 - 1) 진로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로 평가됩니다.
 - 2) 일반고에서는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I, II 과목 또한 성취도 A-B-C로 평가됩니다.
 - 3) 해당 과목의 원점수, 과목평균, 수강자 수가 함께 기재됩니다.





• 진로선택과목의 종류

1) 보통 교과 내 진로선택과목

교과군	진로선택과목
국어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기본 수학, 인공지능 수학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기본 영어
사회	사회문제 탐구, 여행지리, 고전과 윤리
과학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인공지능 기초
제 2외국어	독일어II, 일본어II, 프랑스어II, 러시아어II, 스페인어II, 아랍어II, 중국어II, 베트남어II
한문	한문 II

2) 전문교과 I, II 일반고 개설(특목고, 특성화고는 평가방법 별도 확인)

교과(군)	진로선택과목
과학계열	심화 수학I, 심화 수학II, 고급 수학I, 고급 수학II,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생태와 환경
체육계열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탐구, 체육 지도법,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대인 운동, 단체 운동, 체육전공 실기 기초, 체육전공 실기 심화, 체육전공 실기 응용, 스포츠 경기 체력,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기 분석
예술계열	음악 이론, 음악사, 미술 전공 실기, 무용 감상과 비평, 문예 창작, 문학과 매체, 시 창작소설, 문학 개론,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의 이해, 사진의 이해, 사진 영상 편집, 사진 감상과 비평, 영상 제작의 이해 등
외국어계열	심화 영어I, 심화 영어II, 심화 영어 회화I, 심화 영어 회화II, 심화 영어 독해I, 심화 영어 독해II, 심화 영어 작문I, 심화 영어 작문II, 전공 기초 독일어, 독일어 회화I, 독일어 회화II, 전공 기초 프랑스어, 전공 기초 스페인어, 전공 기초 중국어, 전공 기초 일본어, 전공 기초 러시아어, 전공 기초 아랍어, 전공 기초 베트남어 등
국제계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현대 세계의 변화,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4. 진로선택과목 선택 요령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의 유형을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I, II’로 구분한 것은 학생의 과목 선택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특정 교과 영역에 치우치는 선택보다는 점차 방향을 잡아가는 형태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인문사회계열이더라도 미적분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필요로 하는 학생도 있고, 예체능 계열 희망 학생도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기 위해서 정보 컴퓨터 관련 능력이 요구 되어 관련 과목 이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희망 계열	희망 전공	추천 선택 과목
인문사회	경제학, 통계학	미적분
예체능	산업디자인	정보 관련 교과(컴퓨터)

- 학습의 부담이나 석차등급의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개년 동안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을 극대화해가는 방향에서 이수의 편의성이나 성적산출에 기준을 두는 것은 진로 목표를 성취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 교과 위계

- 1) 수학교과 이수 위계 : 수학교과는 교과의 위계가 명확한 교과군이므로 수강 시기 및 과목의 내용적 단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 2) 교과군별 선이수 권장과목 : 전문교과 중 교과목의 내용이 심화 과목일 경우 교과군별 보통교과 일반 선택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교과 I 과목의 선이수 추천 과목 예시〉

보통 교과		전문 교과 I 중 국제계열 과목
공동 과목	일반 선택	
공동 과목	일반 선택	지역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통합사회	사회·문화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세계사	현대 세계의 변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경제	국제 경제
	정치와 법	국제 정치, 국제법,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 전공(계열)별 관련 교과목 예시

- 1) 인문 계열 학과 : 언어와 문화를 탐구하는 어문 계열 위주로 선택 권장. 제 2외국어의 경우 모집단위에 따라 II 과목까지 선택 가능. 언어 소통 역량뿐만 아니라 문학과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분야이므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등 사회 교과 위주의 과목 선택 권장 위계

구분	1	2	3
기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고전 읽기,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영미 문학 읽기	
탐구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 탐구 중 택 4~6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과학Ⅰ, 생활과 과학 중 택 1~2	
체육·예술	체육, 음악, 미술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철학, 논술, 논리학 중 택 1~2, 제2외국어Ⅰ, 한문Ⅰ, 제2외국어Ⅱ, 한문Ⅱ 중 택 2~3		

- 2) 상경 계열 학과 :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므로 수학교과 선택 권장.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한 정치와 법, 경제, 세계사, 세계지리 등 사회 교과 위주의 과목 선택 권장

구분	1	2	3
기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경제 수학(미적분)*,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탐구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 탐구 중 택 4~6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과학Ⅰ, 생활과 과학 중 택 1~2	
체육·예술	체육, 음악, 미술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음악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정보, 심리학, 실용 경제 중 택 0~2, 제2외국어Ⅰ, 한문Ⅰ, 제2외국어Ⅱ 중 택 1~3		

- 3) 자연 계열 학과 : 수학(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권장. 과학 물화생지 I 과목 모두 이수 권장. 정보 및 가정과학 관련 과목도 연계 가능

구분	1	2	3
기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탐구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중 택 1~2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중 택 3~4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중 택 2~3
체육·예술	체육, 음악, 미술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제2외국어Ⅰ, 한문Ⅰ 중 택 1~2, 정보, 보건, 환경, 가정과학 중 택 1~2		

- 4) 공학 계열 학과 : 수학(미적분, 기하), 과학 물화생지 I 과목 모두 이수 권장. 특히 물리학, 화학, 수학의 경우 심화 수준까지 배울 수 있는 선택 권장

구분	1	2	3
기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탐구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중 택 1~2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중 택 3~4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중 택 2~3
체육·예술	체육, 음악, 미술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제2외국어Ⅰ, 한문Ⅰ 중 택 1~2, 환경, 공학 일반, 가정과학 중 택 1~2		

- 5) 간호·보건 계열 학과 : 화학, 생명과학 권장. 화학, 생명과학은 심화수준까지 권장.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사회문화, 심리학, 보건 등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목 이수 권장

구분	1	2	3
기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미적분)*,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탐구	통합사회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사회문제 탐구 중 택 2~3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화학Ⅰ, 생명과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Ⅱ
체육·예술	체육, 음악, 미술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제2외국어Ⅰ, 한문Ⅰ 중 택 1~2, 심리학, 보건, 제2외국어Ⅱ 중 택 2~3		

6) 예술·체육 계열 학과

구분	1	2	3
기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탐구	통합사회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여행지리 중 택 3~4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과학Ⅰ, 생활과 과학 중 택 1~3	
체육·예술	체육, 음악, 미술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음악 이론, 음악 연주,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미술:미술 창작, 평면 도형, 미술 전공 실기 예술:연기, 시나리오, 연극의 이해, 연극 감상과 비평 체육:체육 탐구, 스포츠 개론,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생활·교양	제2외국어Ⅰ, 한문Ⅰ 중 택 1~2, 교육학, 보건, 가정과학 중 택 1~3		

7) 세부 모집단위 전공(학과)별 이수 권장과목을 참고하여 이수 권장

예: 서울대 모집단위별 권장과목 리스트

모집단위		핵심권장과목	권장과목
사회과학대	경제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자연과학대	수리과학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간호대학		-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공과대	재료공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Ⅱ, 화학Ⅱ, 확률과 통계
첨단융합학부		미적분	확률과 통계 또는 물리학Ⅰ 또는 화학Ⅰ



5. 계열별 선택과목 참고 사이트

- 👉 [커리어넷](#)
- 👉 [메이저맵](#)
- 👉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및 대입자료실](#)
- 👉 [대학 전공안내서](#)
- 👉 [교육부-2015 개정 교육과정 학생 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에듀넷\)](#)

※. 참고 자료 활용 시 유의할 점

- 1) 고교 교육과정 내 진로선택 과목 필수 이수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길 권장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자신의 관심과 향후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에 기반한 모집단위 관련 교과목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 2) 고교 환경에 따라 교육과정 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군이 다양하므로 학생이 속한 고교의 특성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담당 교사와의 상담이나 소속 고교 선배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슷한 계열로 진학한 사례를 토대로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과목을 선택하고, 성실히 이수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 진로선택과목과 학생부종합전형

가. 진로선택과목은 양적 평가보다는 학생 자신의 진로 목표에 맞추어 위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질적 평가로 평가됩니다.

나. 학생부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내용에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 또는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각 모집 단위마다 필수로 이수해야할 과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는 과목들은 적극적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의 고교 기초학습이 필요한 모집단위에서는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매우 중요하게 해석하여 평가합니다.

라. 전공 관련 교과를 해석할 때는 대체로 '계열'로 넓게 봅니다. 각종 교육과정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공(계열)별 이수 권장 진로선택과목은 참고 사항으로써,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생 개인의 흥미와 관심, 향후 학습하고자하는 전공(계열)과 연계된 교과목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 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Guide Book),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과목 개설 안내, 충청남도교육청

II. 입학정보

진로진학정보 얻기	48
수시·정시모집 원서접수 전 체크포인트	52





진로·진학 정보 얻기

최근 변화가 많은 입시환경 속에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기관들의 정보도 많고, 직접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기회도 있다. 관심 있는 대학이 있다면 우선 대학 입학처 정보를 활용해 정확한 입시결과를 알아보고 지역의 대입정보박람회나 대학 방문을 통해 입학사정관과 상담 기회를 가져봄으로써 나의 학교생활을 점검해 볼 수도 있다. 학종 준비와 과목 선택 등 최근엔 입시 준비가 빨라진 경향이 있으므로 목표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자기주도적인 노력을 시작해보자.

대구광역시교육원 대입지원관 허경아



직접 찾아가는 대입 정보

대학입학정보 박람회를
찾아 원하는 대입 정보를
직접 얻는 방법!!



매년 7월, 12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수시·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통해 관심 있는 대학의 부스를 직접 찾아 원하는 대입 정보를 얻어 보자.

충북교육청도 매년 7월 대학입시박람회를 개최하여 대학별 상담부스, 1:1 대면상담, 대입설명회,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 등을 진행하므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보자.



관심 있는 대학의 상담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



전화 상담 : 043-261-2882(입학발리)
이메일 상담 : welcome@cbnu.ac.kr
방문 상담 : 043-261-3776

위 치 : 충북대학교 N10동 153호 입학웰컴센터
상담시간 : 화, 목 09:00~18:00(12:00~13:00 제외)



온라인 상담



대교협
온라인 상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홈페이지-
[대입 상담]-[온라인 대입 상담]-
[상담 신청]에 상담 내용을 작성,
대학 입학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다.



대교협 전화 상담
(☎ 1600-1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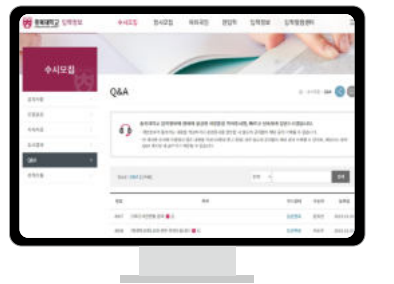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현직 진로진학 교사 370여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이 입시에
관해 무료로 상담해준다.

상담시간: 평일 9:00~22:00, 토요일 9:00~13:00



충북대 온라인
입학 상담

충북대 수시·정시 전형과 입시 결과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하고 입학사정관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진로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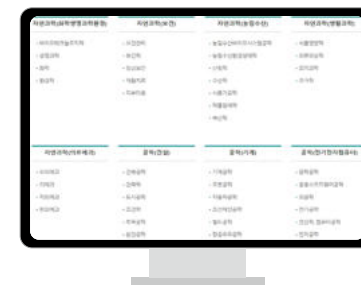
워크넷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
메뉴 중 '직업·진로'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매우 유용한데, 직업심리검사
중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와 학과
정보에서 계열별(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정보와
이색학과 정보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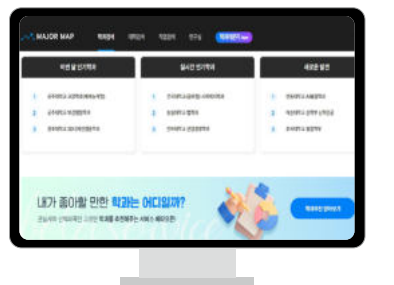
대교협 온라인
전공 상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의
전공멘토단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시판으로, 원하는 전공을 클릭하여
질문 글을 작성하면 전공멘토단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대입을 준비하는 수
험생의 진로 및 학과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메이저 맵
(Major Map)

데이터 기반 입시 진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메이저맵은 학과, 학교, 직업을
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관심 있는 대학과 학과를 검색하면
빅데이터 키워드가 제시되며 각 대학
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연관성이
있는 학과 정보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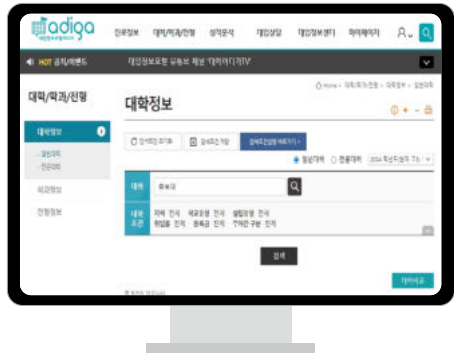


대학 정보

어디가(Adiga)



대학입학정보 포털서비스로
대학의 입시정보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수험생 스스로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사이트로, 관심 대학명을 입력하면 신입생 등록률, 중도
탈락률, 취업률 등의 대학 공시 정보와 대입 특징, 전형
평가기준 등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대학 알리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정보 제공 사이트로, 대학별 주요
공시 내용이나 지표 검색, 학과 정보 등 대학과 학과
탐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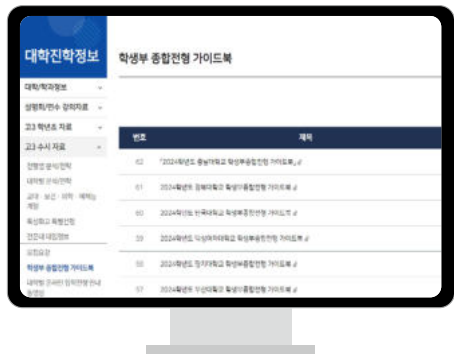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서울 및 각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관심 있는 대학의 학종 지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학년부터 학교생활에 참고해볼 수 있는 대학별 최신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및 참고 자료



에듀넷은 학생들이 진로적합성 높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보건, 체육 등 계열별
분야의 진로와 이수과목 예시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능 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와
연동된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는 수능시험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매년 3월 말 그해 치러지는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7월 초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한다. 또, 6월, 9월 수능 모의평가에 대한 정보와
수능 응시 원서접수 안내, 접수 결과 및 수험생 유의사항
등도 공지하고 있다.



EBSi



EBSi는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시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특히 고3·N수·
입시정보 메뉴에는 입시 설명회, 뉴스/공식 발표자료,
입시 매거진, 대입 상담실, 1:1 논술첨삭, 대학별 입시
정보, 학습유형검사, 진로탐색 검사 등의 알찬 메뉴가
포함 되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모의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 문제 등을 볼 수 있다.





성공적인 대학입시를 위해 수시와 정시 지원 시 확인해야 될 주요 내용

청주대성고등학교 교사 **오용식**

수시인가? 정시인가?

많은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고교생활이 힘들고 학업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수시와 정시 모두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학교 내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시를 준비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시에는 학생부교과전형 뿐만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도 있기때문에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채워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임에도 학교 생활기록부를 일부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 내신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과목만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시모집에서도 수능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를 함께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니, **수시와 정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대학입시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수시는 6개(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 정시는 3개의 원서를 쓸 수 있으니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와 정시 모두를 염두에 두며 학교생활과 학업에 집중하기를 추천한다.



대학 모집 요강 체크하기

수시든 정시든,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모집요강에 모두 담겨있다. **입시 성공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은 대학 모집 요강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 지원하는 전형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별 모집 요강 구성은 이렇게 !

- | | |
|---|-------------------------------------|
| I.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입학정원) | IV.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총원합격발표 및 등록 |
| II. 모집단위·전공(입학정원) | (미등록 총원 등) 등 안내 |
| III. 전형별 모집인원 | V. 세부 전형별 안내 00000 전형 |
|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VI. 수시 : 학생부 반영방법 |
| 2. 지원자격 | 정시 : 수능 반영방법 |
| ※ 수능최저학력기준 | 학생부 반영방법 |
| 3. 전형방법 | VII. 지원자 유의사항 |
| 4. 선발원칙 |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유의사항 |
| 5. 전형일정 | – 대학별 유의사항 |
| 6. 제출서류 | VIII.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
| ※ 동점자 처리기준 | IX. 전형료 |
| V-1. 제출서류 안내사항(양식포함) : 별첨 자료로 활용 | X. 학사안내(장학금, 기숙사, 학사, 취업)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통권장)

수시모집·정시모집 원서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매년 대학 사정에 따라 모집단위, 전형, 모집인원 등에서 많은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모집요강 첫 페이지에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모집단위의 명칭 변경, 학과모집에서 학부모집으로 변경, 학부모집에서 학과모집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 모집단위별로 선발하는 인원과 전형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는 모집단위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모집인원을 확인할 때는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감 여부는 그 해 대입 경쟁률뿐만 아니라 총원율과 최종 입시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시모집에서는 수시 이월 인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지원자격

- 일반전형은 지원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나 지역 제한이 있는 지역인재전형, 전형별로 자격 조건이 다른 특별전형(농어촌학생/특성화 고교/고른기회전형 등) 지원자는 지원자격을 세심히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전형개요

전형구분			설명
정원내	일반 전형	일반전형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특별 전형	특기자 특별전형	특기와 관련된 경기(대회) 참여 경력, 입(수)상실적, 자격(증), 성적 등을 지원자격으로 요구하거나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전형을 의미함
		대학별 독자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대학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자격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 하는 전형
정원외	특별 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재학기간·주거지·학교소재지가 농어촌(읍·면지역)에 해당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선발하는 전형
		특성화고료 졸업자 특별전형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선발하는 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결산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결정하고 선발하는 전형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아 선발하는 전형
		서해5도 특별전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15조 및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전형 서해5도에 거주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자료: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3. 전형방법

-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다양하다.
- 반영 교과 및 반영 과목 수, 등급별 반영 점수, 진로선택과목이나 전문교과의 반영 여부 및 반영방법 등이 대학마다 다르므로 학생의 상황 따라 대학별로 유불리가 발생하게 된다.
- 교과성적뿐만 아니라 서류평가, 면접평가, 수능최저학력기준 등의 다양한 평가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대학별 모집요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적용 여부가 합격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년도와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적용 여부나 기준이 달라졌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

> 2025학년도 대학별 학생부교과전형 반영방법 예시

대학 (전형명)	계열	반영교과	반영과목		교과	비교과	비고	최저 유무
			공동, 일반선택	진로선택				
건국대 (KU지역균형)	인문	국,수,영,사,과, 한국사	해당 교과 전과목	정성평가	70		서류평가 30	×
	자연							
덕성여대 (학생부100%)	인문	국,수,영,사/과	상위 3개 교과 4개 과목	3과목 반영	100			○
	자연							
동국대 (학교장추천)	인문	국,수,영,사, 한국사	상위 10과목	정성평가	70		서류평가30, (교과 관련 영역, 이수단 위 미적용	×
	자연	국,수,영,과, 한국사						
상명대 (고교추천)	인문	전 교과	전과목	최대 3과목 반영	100			○
	자연							
성신여대 (지역균형)	인문	국,수,영,사, 한국사	해당 교과 전과목	3과목 반영	90	출결 10		○
	자연	국,수,영,과						
이화여대 (고교추천)	인문	국,수,영,사,과, 한국사	해당 교과 전과목 80% 반영	해당 교과 전과목 20% 반영	80		면접 20	×
	자연							
한국외대 (학교장추천)	인문	국,수,영,사, 한국사	해당 교과 전과목	해당 교과 전과목	100		교과별 반영비율, 등급 환산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점수 반영	○
	자연	국,수,영,과						
한양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인문	국,수,영,사,과, 한국사	해당 교과 전과목	정성평가	90		서류평가 10	○
	자연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 2025학년도 주요 대학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

구분	3과목	전과목
성취도	가산점	서울여대, 전북대, 한경국립대, 항공대
	등급 변환	광운대, 단국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인하대
	등급 변환	경인교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차의과대, 홍익대
	등급별 분포	고려대, 서강대, 충남대, 충북대
정성평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미반영		경북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서울한영대, 서울기독대, 성공회대, 수원대, 안양대, 을지대, 인천대, 한국성서대 등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4. 2025학년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대입전형 일정

– 수시모집

8월	9월 ~ 12월		12월			
31(토)	9.9.(월) ~ 9.13.(금)	9.14.(토) ~ 12.12.(목)	13(금)	16(월)~18(수)	26(목)	27(금)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수시모집 원서접수	수시 전형기간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	수시 미등록 총원합격 통보 (18시)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 정시모집

11월	12월~2025년 1월	2025년 1월~2월	2월
30(토)	31(화)~2025.1.3.(금)	7(화)~2. 4.(화)	7(금)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군별 전형기간(가,나,다군)	정시 합격자 발표 마감

- 대학마다 원서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원서접수 시작 일시와 마감 일시를 반드시 모집요강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 원서접수 시 면접이 있는 전형은 면접일자(수능 전·후, 다른 대학 면접일과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면접유형(인성 및 적성 면접,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 상황 기반 면접 등), 면접평가 내용(예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 역량), 면접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

5. 제출서류

- 일반전형의 경우, 대개 학교생활기록부만을 필수서류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지원자격 충족여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자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 특별전형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6. 수능 필수영역(대학별 필수 지정 영역 및 과목)

-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에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증가한다.
-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비교하면 17개교에서 수능 수학영역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탐구영역에서 과학 탐구영역을 필수로 반영하는 것을 폐지하였다.
- 반면 여전히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 과학탐구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으니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2025학년도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

구분	전형유형	대학	학교 수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서울과기대,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7
	특별전형	이화여대	1
	논술위주	세종대, 아주대, 이화여대	3
정시모집	수능위주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한양대(ERICA)	17

출처: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

6-1. 수능 필수영역(대학별 필수 지정 영역 및 과목)

- 지원대학 및 모집단위별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시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영역 및 과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는 합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저학력기준 적용 방법 및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이 충족 가능한 수준인지를 체크하여야 한다.

6-2. 정시모집에서의 수능 반영 방법

- 수시와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영역 및 과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지표를 활용하여 성적을 산출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수능성적 활용지표

- 대부분의 대학에서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 표준점수+백분위를 활용하여 선발하고 있다. 이 중 서울 소재 대학 중심으로 국어와 수학영역에서 표준점수, 탐구영역에서 변환표준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고 있다. 변환표준점수의 경우 수능 성적 발표 후에 대학별로 공지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대학별 환산점수는 입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지원 시 유불리를 확인해야 한다.

> 2025학년도 수능 활용 지표 대학 현황 예시

구분	대학
표준점수	서울대, 서울교대, 성균관대(특성화고졸), 송실대, 공주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체대, 전남대, 홍익대 등
백분위	강원대, 건양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단국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목원대, 부산교대, 서원대, 우석대, 전주교대, 청주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남대, 한밭대 등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등급	광주여대, 금강대, 삼육대, 세한대, 평택대, 호원대 등

출처: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

- 영역별 반영비율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에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나오지만, 실제 정시모집에 지원하면 대학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의 지표를 활용한 대학별 환산점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표를 반영하거나 표준점수나 백분위가 높은 과목의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 반영 영역의 수, 영역별 반영비율이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율이 높다고 실질 반영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	영역 수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A대학	3개	반영비율	40%	40%	등급별 감점	20%
		실질 점수(점)	1.2	1.2	-	0.6
B대학	4개	반영비율	35%	25%	20%	20%
		실질 점수(점)	1.4	1	0.8	0.8

출처: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

- 비율을 1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대학의 국어 반영 비율은 40%이고 B대학은 35%이라고 하면 국어의 영향력은 A대학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 점수 영향력을 산출해보면 A대학은 반영비율이 적용된 영역이 3개로 국어의 반영비율 40%는 $3(\text{반영비율이 들어간 영역의 수}) \times 0.4(\text{비율을 정수로 환산한 값}) = 1.2$ 점이 된다. 국어 1점이 1.2점으로 반영되지만 같은 방식으로 B대학의 국어 점수 1점의 실질 점수 영향력을 산출해보면 $4 \times 0.35 = 1.4$ 점이 되므로 오히려 B대학의 국어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한다





> 2025학년도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

대학	계열	영역 수	선택과목지정		반영비율(%)					탐구 수	비고
			수학	탐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서울대	인문	3			33	40	감점	27	감점	2	제2외국어 응시 필수
	자연	3	미적, 기하	과탐	33	40	감점	27	감점	2	
	예체능	3			50		감점	50	감점	2	디자인, 체육교육 상이
		3			33	33	감점	33	감점	2	디자인과
		3			33	40	감점	27	감점	2	체육교육과
경희대	인문	4			30	30	15	25	감점	2	사회계
		4			35	20	15	30	감점	2	인문계
	자연	4			20	35	15	30	감점	2	
	예체능	3			50		20	30	감점	1	
충남대	인문	3			45	25	감점	30	감점	2	모집단위별 상이
	자연	3		과탐	25	45	감점	30	감점	2	물리학과 등, 일부모집단위 과탐지정 없음
		3	미적, 기하	과탐	25	45	감점	30	감점	2	의예, 수의예, 약학, 수학, 수학교육, 정보통계
	예체능	3			40	30	감점	30	감점	2	
충북대	인문	4			30	20	20	30		2	자율전공학부 상이
	자연	4	미적, 기하	과탐	20	30	20	30		2	의예, 수의예, 약학, 제약학, 수학교육, 정보통계
		4		과탐	20	30	20	30		2	기계공학부 등, 일부모집단위 과탐지정 없음
	예체능	3			40		20	40		2	

출처: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

- 영어 반영방법

- 수능성적표에서 등급만 제공되는 영어는 등급별로 환산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하거나, 가(감)산점을 반영한다. 대학별로 반영방법 및 반영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 유불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 2025학년도 대학별 영어 반영방법 예시

구분	반영방법	대학
서울소재 대학	등급별 점수반영 후 비율 적용	건국대, 경기대(서울),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총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감점	가톨릭대(서울), 고려대, 서울대
	가산점	강서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이화여대, 중앙대
지역거점국립대	등급별 점수반영 후 비율 적용	강원대,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감점	충남대
	가산점	전남대, 전북대

출처: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

- 한국사 반영방법

- 대학에 따라 반영 여부, 반영 비율, 가점, 감점,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등의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사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낮은 등급에 치명적일 수 있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사가 탐구영역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알아보고 유리한 점수 방식을 찾아야 한다.

> 2025학년도 대학별 한국사 반영방법 예시

구분	반영방법	대학
서울소재 대학	감점	가톨릭대(서울), 건국대, 경기대(서울),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총신대, 한양대
	가산점	고려대, 광운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여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세종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성대, 홍익대

출처: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



> 원서접수 전 체크포인트 및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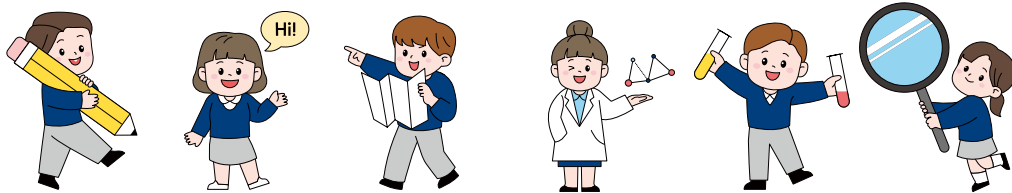
원서접수 전 체크포인트!

- ☒ 희망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모집전형 확인
-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제출서류 체크 필수)
- ☐ 전형일정 확인 (원서접수, 서류제출기한, 면접일자 확인)
- ☐ 전형방법 확인(단계별/일괄합산)
- ☐ 전형요소 확인 (교과성적/서류평가/면접평가/수능최저)
- ☐ 내신 반영교과 확인 및 진로선택교과 반영여부 및 방법 확인
- ☐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평가항목 확인
- ☐ 수능 최저학력기준 확인 (필수 응시영역 및 과목 체크)
- ☐ 정시 수능 활용지표 확인
- ☐ 정시 영역별 반영비율 및 가산점
- ☐ 영어 및 한국사 반영방법 확인
- ☐ 전년도 입시결과 찾아보기



- 리스트 작성의 예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수학과 8명	수시 학생부종합I 전형 철학과 4명	정시 농어촌학생전형 경영학부 2명
원서접수일	9. 16~17 19시까지	9. 15~17 18시까지	1. 3. ~ 1. 7. 18:시까지
제출서류	-	-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주민등록초본 (1. 12.까지 제출)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일괄합산 내신100% 수능 최저 적용	일괄합산 서류평가 100% 수능 최저 없음	일괄합산 수능 100%
[수시] 내신 반영교과목 산출방법	국영수사과 전 과목 등급 반영 진로선택교과 반영	정성평가	-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	서류평가 전문성, 사회성, 적극성	-
수능최저 (영역 및 등급)	국영수탐(1과목) 중 3개합 12등급 미적분/기하 필수	-	-
[정시] 수능 반영지표	-	-	표준점수
[정시] 영역별 반영비율	-	-	국30/수20/영20/탐30 한국사·영어는 반영하지 않음
합격자 발표일	12. 15. 17시	12. 15. 17시	1. 18. 13시
전년도 입시결과	최초 평균 3.1 최종 평균 3.4 경쟁률 5:1 예비번호 12	최초 평균 3.2 최종 평균 3.6 경쟁률 4:1 예비번호 7	최초 환산점수 965 최종 환산점수 935 경쟁률 7:1 예비번호



3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Ⅲ.전공안내

[기초학문분야] 인문학	66
[기초학문분야] 물리학	68
[첨단분야] 컴퓨터과학	70
[첨단분야] 바이오헬스	75



기초학문분야 안내 인문학

충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정세근



• 인문학(人文學)이란 인간과 문화를 아우르는 학문입니다. 후마니타스라고 불리는 인간학(the humanities)이 곧 인문학입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을 넓히는 자유학(liberal arts)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무늬를 남깁니다. 길이 대표적인 사람의 무늬입니다. 길은 그런 점에서 도(道)이며, 인문학은 도학(道學)입니다. 길을 닦아 길을 내는, 진리를 좇아 진리에 가까워지려는, 그리하여 도에 이르는 학문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떤 원리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원리가 남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원리가 되면서 사회는 좀 더 좋아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있는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앎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구속과 제한을 넘어 새로운 삶에 이르게 합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국가의 목적은 자유다”라고.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우리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나갑니다. 인문학, 그 가운데에서도 철학이 바로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산업혁명을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철기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도, 건물도, 밥그릇도 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쇠가 없이는 현대문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관(엔진)의 발명입니다. 그런데 기관(엔진)의 발명으로 우리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기계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관을 단 철마는 대륙을 횡단하게 해주었으며, 기관을 단 배는 대양을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엔진은 곳곳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입니다. 전기에너지로 활용하면서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른바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은 우리를 바로 야생의 상태로 돌릴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의 발명입니다. 컴퓨터는 0과 1밖에는 모르지만 인류가 할 수 없는 계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온갖 소꿉놀이(시뮬레이션)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의 발명입니다. 모든 컴퓨터가 하나의 그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른바 ‘WWW(World Wide Web)’은 전 세계를 하나의 그물로 엮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원전 3천 년에 발명된 바퀴를 씁니다. 비행기도 착륙할 때 바퀴를 쓰지 않고는 땅에 내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의 사람이며, 불교가 말하는 ‘생로병사(生老病死)’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문학은 이를 바라봅니다. 문명의 발달도, 인류의 한계도, 편리의 위험도, 새로운 인류(포스트휴먼)의 탄생도 통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사람이란 무엇이며, 사람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인문학은 이를 묻습니다. 사람이 벌이는 상상은 문학으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은 역사로, 사람의 여러 사유는 철학

으로, 그리고 사람의 온갖 언어를 인문학은 담습니다. 문, 사, 철이 중심이 되어 온갖 어학을 펼칩니다.

인문학은 특정한 직업을 학문의 목표로 삼지 않지만, 인문학 전공자는 어떤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도자(CEO)뿐만 아니라, 연예계를 비롯한 언론방송(PD)과 예술계를 비롯한 문화산업(K-culture)에 진출하여 창작자(creator)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가 인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하나의 예로 AI(인공지능)의 등장은 사람이 할 일을 엄청나게 줄여놓았습니다. 컴퓨터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다루게 되면서 사람이 습득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서 벌어진 일입니다. 변호사 일을 비롯해서 의사의 수술까지 인공지능이 해내게 될 것입니다. 사라질 직업은 상상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이때 인문학은 빛을 발휘합니다. AI가 못하는 것을 인문학자는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창조의 영역으로 인문학은 인도합니다. 이제는 기초가 중요한 때입니다. 어설픈 코딩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제대로 된 학문의 본령에 뛰어든 때입니다. 물고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통발에 매달려야 합니다.

현재 많은 대학은 인문학으로 공부를 시작해도 다른 학문과 함께 공부할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연계전공이나 복수전공이 그것입니다. 인문학도가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철학을 하면서도 국문학, 경영학, 행정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잘하는 학생은 다른 학문도 잘합니다. 하나를 아는 학생은 열을 압니다. 철학에서 배우는 분석, 종합, 비판의 능력은 곳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인문학은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끕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일 때는 그것만 문제인데, 그것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선 자신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누구의 수단이 되지 않고 오롯이 자기의 이상에 충실한 인문학도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 보기 바랍니다.

인문학은 사람이라면 배워야 할 것을 배웁니다. 인문학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길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람인 까닭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입니다.

철학과에서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적 유산인 동서양의 철학적 전통과 지혜를 연마하고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현대철학의 다양한 조류를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학과를 졸업하면 학계, 언론계, 출판계, 문화계, 종교계, 정치계, 교직, 공직, 기업, 자영업 등과 같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 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은 다른 실용적인 첨단 학문분야와는 달리 유효기간이 없는 학문으로서 한 번 배우고 익혀 두면 일생 동안 두루 삶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익히면 익힐수록 자신의 삶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인간과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원리를 다루는 학문으로써 다른 모든 학문에 토대를 제공하는 근본학문입니다. 모든 학문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용기와 슬기를 지닌 사람이라면 때를 놓치지 마시고 누구나 한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과

소개

-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세계철학의 역사와 현대철학의 여러 조류를 두루 살피며, 존재와 가치의 여러 주제들과 논리/인식/실천의 여러 문제들을 탐구
- 학생 각자의 개인적 삶과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갈 올바른 바람직한 철학적-사상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우리 사회의 정치적-문화적 진보-발전에 기여할 비판적 지성, 자유로운 인문적 상상력, 평화 지향의 도덕적 감수성, 실천적 의사-역량을 두루 함양

진로

- 학계, 교육계, 언론계, 정치계, 출판계 등의 다양한 전문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며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공무원, 인권·환경 관련 NGO 활동가, 연구자, 경영자 등

기초학문분야 안내

물리학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강병원**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 물리학은 자연의 운동과 질서를 이해하는 학문으로서 극미 세계의 아원자 입자에서부터 무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연구 범위가 가장 광대합니다. 물리학과에서는 이와 같은 자연의 모든 계에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이론과 실험적 방법들을 수학합니다. 따라서 물리 전공자들은 자연과학의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과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리의 근본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일을 수행해 낼 수 있습니다.

실제 물리 현상에 기반한 창의적인 기술은 반도체, 레이저, 신소재, 핵기술, 인터넷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물리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그리고 나노기술(NT) 모두 물리학적 지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미래를 주도할 각종 첨단 융합 신기술에서도 물리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은 전통적인 기초학문의 범주를 넘어 양자정보, 초전도, 반도체 물리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견인하는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더욱 기대되는 학문입니다. 특히 물리학은 현대 양자정보과학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중첩과 얽힘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제2차 양자혁명의 시대에 물리학은 초고속 양자컴퓨터, 절대 보안을 제공하는 양자통신, 극한의 현상을 측정하는 양자센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합니다.



물리학과에서는

• 물리학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깊은 고민과 오랫동안의 준비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물리학이 당면한 여러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도 양자 정보과학, 오창 방사광가속기, 반도체, 2차전지 차세대 에너지, 나노바이오기술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여러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물리학과의 교육과정은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부 과정에는 고체물리학, 반도체물리학, 입자물리학과 상대성이론, 천체물리학, 통계물리학, 전산물리학, 생물물리학 등의 교과목이 있으며, 레이저, 전자공학, 반도체와 첨단 기기 등 다양한 장비의 활용에 관한 실험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교육과 분야별 연구 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전공에는 자성체, 초전도체를 포함한 응집물질물리를 비롯하여 반도체물리, 입자물리, 광학, 연성물리, 통계물리, 천체물리 및 가속기물리 까지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친 졸업생들은 공무원, 연구소,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 과학관, 교육 공무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다양한 교육, 연구기관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등의 유수의 국내 기업들과 외국기업인 Thermo Fisher Scientific, 일본의 저명 진공 장비업체인 Ulvac-phi 등에서도 이미 다수의 물리학과 졸업생이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며 빛을 내고 있습니다.

물리학 적용분야

• 물리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핵심 과학 중 하나입니다. 물리학은 물질, 에너지, 우주와 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함께 현실 세계에서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학

물리학의 이론과 원리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물리학에서 배운 법칙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스템과 기계를 설계하고 최적화합니다. 기계 공학, 전기 공학, 항공 우주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리학의 이론이 적용되며,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엔진, 항공기 디자인, 전기 회로 등이 있습니다.

의학

의학에서는 물리학에서 배운 방법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의학 영상 진단 기술인 X-선, MRI, CT 등은 물리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또한 물리학에서 배운 이론들이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에너지 생산, 저장, 전송, 사용 등에 물리학의 원리를 활용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소, 전기 저장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물리학의 기술을 최적화하고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컴퓨터는 전자와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자, 전기, 자기, 빛 등의 원리를 다루며,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물리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로봇, 가상 현실 등을 개발하고 연구합니다.

환경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이론과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후 변화 등의 문제는 물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대처해야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화학물질이 대기나 수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우주탐사

우주 탐사에는 여러 가지 물리학적 원리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로켓 엔진, 인공 위성, 우주선 등의 기술은 물리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태양계 및 우주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리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적 이론을 활용해야 합니다.

물리학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우주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리학의 이론과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출처] 물리학의 중요성과 적용 분야 CJK

물리학과

소개

- 기초적 이론 및 실험을 익히고, 과학적인 사고와 논리의 전개를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
- 일반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수리물리학 등 물리학의 기초이론을 다루는 과목
- 기초물리실험, 첨단기기실험 I, 전자소자실험, 전자물리 실험, 광제어계측실험 등의 기초실험을 다루는 실험과목
- 입자물리학, 원자핵물리학, 통계물리학, 고체물리학, 광학, 전산 물리학, 생물물리, 천체물리 등의 분야별 전공과목 개설
-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서는 타 자연과학 분야나 공학 등 응용 과학 분야를 쉽게 복수 전공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운영

진로

- 첨단기술 분야: 반도체, 전기·전자, 첨단 재료, 물성분석 등
- 에너지 분야: 광통신, 정보처리, 광전자, 디스플레이 등의 정보 분야, 원자핵,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등
- 중등교사, 컴퓨터 분야, 메카트로닉스, 변리사 등

첨단분야 안내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이의중



• 요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알파고(AlphaGo)라는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프로 기사를 이겼고, 많은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ChatGPT와 Bard라는 인공지능 챗봇이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정교하고 상세한 답변을 생성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똑똑한 인공지능은 어떤 공부를 해야 만들 수 있을까?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정보의 전반을 다루는 기술인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이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등 최근 각광 받는 기술들도 ICT 분야의 하위 기술이다. ICT는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 컴퓨터하드웨어, 네트워크기술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ICT의 기본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이다.

컴퓨터과학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처음에는 '전자계산학' 또는 '전산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학, 컴퓨터과학, 컴퓨터공학, 정보공학

등으로 불린다. 사실 명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컴퓨터공학은 하드웨어를 다루는 세부명칭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큰 의미로 유사한 학문 분야로 통용되고 있다.

컴퓨터과학은 그럼 어떤 것들을 다루는 학문일까? 컴퓨터과학은 컴퓨터와 이를 응용하는 학문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계산과 정보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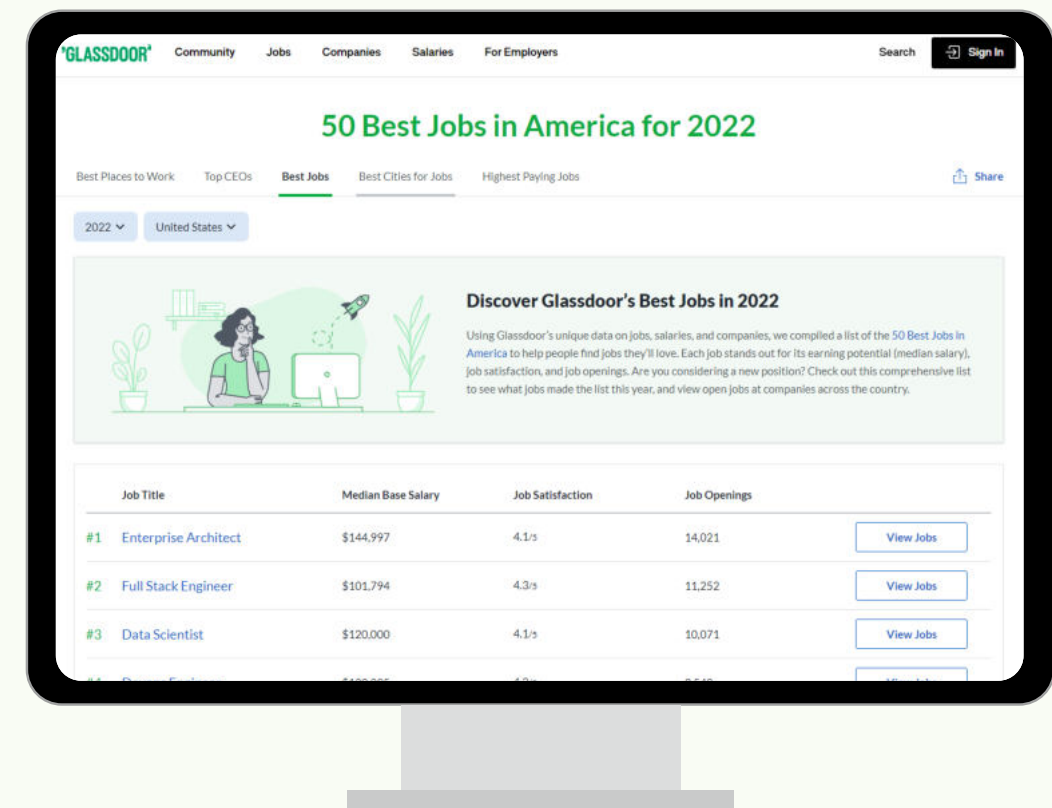
실제로 컴퓨터과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 결합 되어 새로운 지식영역을 확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생물정보학, 의료정보학, 계산사회학 등의 학문이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현대 사회에 컴퓨터과학이 끼치는 영향은 더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컴퓨터과학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양성도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컴퓨터과학과 관련된 교과를 의무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컴퓨터과학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Developer)가 대표적인 직종이다. 개발자는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하고, 넓게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컴퓨터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만족도와 전망은 어떨까? 미국의 구직사이트인 Glassdoor사에서 2022년 유망직업 50개를 선정했다. 그중 상위 15개의 직업 중 11개의 직업

(Enterprise architecture, Full Stack engineer, Data Scientist, DevOps engineer, Machine learning engineer, Data engineer, Software engineer, Java developer, Back-end engineer, Cloud engineer,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이 컴퓨터과학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컴퓨터과학과 관련된 전문가에 크게 관심이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직업적 만족도도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직업시장에서 컴퓨터과학 관련 직종의 전망이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glassdoor.com/>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주요 이슈를 10가지로 도출하였다. 선정된 이슈를 종합하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의 확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프트웨어의 영역으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 확대가 전망된다.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컴퓨터과학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어 미래에도 컴퓨터과학의 전문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 : 남현숙, 전이슬, “2023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2.12.22.



이슈	내용 요약
인공지능 기반 모델의 고도화	·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되며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
플랫폼형 SaaS의 공공부문 확대	· 단기간에 앱을 만들 수 있는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Software as a Service)로 개발 플랫폼 전이 전망
커지는 마이데이터 신뢰성	· 개인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적극적 관리/통제하는 기술인 마이데이터 발전 · 마이데이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보보안 기술 필요성 대두
자동차 기술 경쟁력 중심축 SW 이동	· 자동차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대
산업 메타버스의 확산	· 메타버스 시장의 투자와 기회 확보를 위한 활용 사례의 확장 필요
사물지능의 융복합화 가속	· 사물인터넷 관련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기술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버추얼 휴먼의 영향력 확대	· 가상 인물인 버추얼 휴먼의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초고령화에 대응한 스마트의료 본격화	·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혁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
인프라로서 디지털 플랫폼 역할 강화	·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로 활용
Web3: 탈중앙화와 탈독점 촉진	·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와 탈독점화 된 경제체계로 진화 전망

이미지출처 : 남현숙, 전이슬, “2023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2.12.22.



컴퓨터공학과

소 개

- 컴퓨터공학과는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통해 컴퓨터공학의 제반지식을 함양하고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기술활용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교육하고자 한다.
- 전공교육과정은 이산수학, 데이터구조, 운영체제, 전자회로, 네트워크 등 컴퓨터공학 이론 교과목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실험실습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픈소스 관련 교과목에서는 C, Python, Java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능력 및 기술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이후 산학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통해 실제 문제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습득한다.
- 비교과과정으로는 미래설계 및 창업 관련 교과목을 통해 학과 전임교수의 관리 하에 체계적인 전공역량강화 및 취·창업 포트폴리오 작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험실습교과목과 연계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공교과목을 통해 수행한 개별 학생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동아리 활동, 공모전,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등 다수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체계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진 로

-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공학 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진출 분야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NHN,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 및 IT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리서치, 네이버랩스, 카카오브레인 등 각 기업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에서도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컴퓨터공학 기반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은행의 전산 부서, 컴퓨터 교육 분야에서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또한, 컴퓨터공학 전문지식은 오늘날 제조(로보틱스, 자율주행), 의료(맞춤의학, 신약개발), 유통(빅데이터 활용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융합기술 관련 진출자도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학과

소 개

- IT 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반면, 구글, 애플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지속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I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최근 IT 산업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9년도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수요는 연평균 9.4% 증가할 것이며 앞으로 4년간 5만 6천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공공기관(소프트웨어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의 충북지역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크게는 스마트와 모바일로 대변되는 지식기반사회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프트웨어학과와 비전은 매우 밝으며 그 역할 또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진 로

-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진로는 대기업, 중견(소)기업,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전산부서, 소프트웨어 컨설팅, 중고등학교 컴퓨터교사, 대학원 진학(유학 포함), 전산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 매우 다양하다.
- 대기업: 삼성전자, 삼성SDS, LG전자, LG CNS, LG이노텍, SK CNC, SK하이닉스 등
- 중견(소)기업: NHN, 다음, 엔씨소프트, 펄텍, 세이퍼존, 파워로직스, 동양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신한카드, 일동제약, 유유제약, 와이드티앤에스, 어니컴, 텔로드 등
- 대학원: 서울대학교, KAIST, 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 공공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보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충북교육청, 인천공항세관 등
- 공무원: 전산직 국가 및 지방직
- 금융기관의 전산부서, 소프트웨어 컨설팅 등

첨단분야 전공안내

바이오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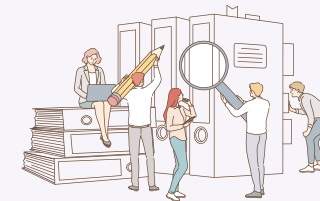


바이오산업

-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있는데 그중 바이오산업 분야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첨단분야를 견인할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BT)을 기반으로 생물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중 바이오헬스분야는 생명공학의학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바이오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질병 예방, 진단 및 치료, 건강 증진에 필요한 유용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발생, 건강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바이오헬스분야의 규모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헬스분야는 바이오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료 산업 등을 융합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바이오기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헬스케어 서비스 등 보건·의료 영역이 그에 해당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변화

- 코로나19 확산은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것은 물론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빠르게 확산시켰으며,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발병 후 치료' 중심에서 '발병 전 예방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원격의료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 의료기기의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 등의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산업의 발전

- 급속한 융합기술의 발전도 바이오헬스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기존의 바이오헬스분야가 진단 위주, 질병에 대한 치료, 사후대처 위주의 산업이었다면 현재는 질병의 예방, 맞춤형 의료 등에 중점을 두는 바이오 의료 기술 또는 의료서비스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융복합기술의 발전은 유전자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생체신호(바이오마커)를 활용하여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약물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궁극적으로는 환자 개인에게 맞는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정밀(맞춤)의료를 가능하게 한다.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질환과 건강에 대한 생체정보들이 축적된 건강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도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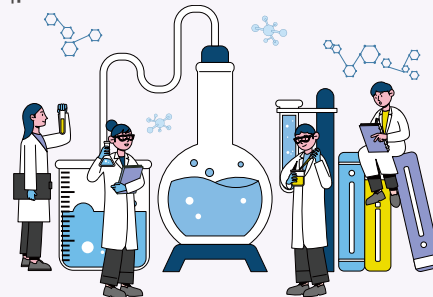
바이오산업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 정밀의료, 의료 빅데이터시, 재생의료, 신개념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바이오헬스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기술집약적이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차별화된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분야에 특화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헬스학부를 신설하였다. 바이오헬스학부는 첨단분야로 지정된 학부로, 원헬스(One Health) 기반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산업혁신”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학부이다. 원헬스(One Health)는 사람, 동물, 생태계 사이의 연계를 통하여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의미한다.

바이오헬스학부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바이오헬스공유대학**’이 연계·신설한 학부이며, 3개의 전공(바이오헬스케어전공, 수의생명보건전공, 바이오헬스산업전공)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의 학부가 전무한 상태로 충북대 바이오헬스학부가 관련 산업체에 바이오·원헬스 분야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오헬스학부 (바이오헬스 케어 전공)

소 개

- 첨단 바이오헬스 융복합 신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바이오산업에 진출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맞춤형 바이오헬스케어 전문인재 양성
- 정밀의학바이오, 임상약리, 보건의료R&D, 보건의료정책 및 질병관리, 지능의료정보학의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진 로

- 국내외 공공립 및 민간 연구기관, (정밀의학 분야) 제약 바이오기업, 병원, 글로벌제약바이오, 의료정보 시스템 기업, 임상시험중사자, 임상시험데이터전문가, 임상시험 규제전문가, 대학 교수 및 박사 후 연구원, 비임상시험 종사자, 동물시험대체 및 첨단시험대체 연구원,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체, 공공기관, 병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중앙보건의료기관(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 및 연구직, 시도청, 보건소 보건사업 담당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기업 내 헬스케어사업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벤처/스타트업 등

바이오헬스학부 (수의 생명 보건 전공)

소 개

- 미래형 수의학교육시스템 확립과 One Health 기반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산업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 및 미래가치 창출
- 수의첨단바이오 및 수의보건 분야 교육과정 운영

진 로

- 정부 및 공공기관(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지방 가축위생시험소,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학계 및 연구기관(수의과대학 대학원, 동물보건학과 개설 대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수의과학 관련 국가연구소, 기업체 의약품 연구소, 동물 생명공학 연구소, 종복원 연구소 등), 전문가관(동물병원, 실험동물센터, 동물원, 야생동물센터 등), 기업(백신회사, 제약회사, 생명공학회사, 동물약품회사, 동물의료기기회사, 식품회사, 사료회사 등)

바이오헬스학부 (바이오 헬스 산업 전공)

소 개

-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산업 분야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무교육과정 특성화 전공으로서, 바이오 의약품 등의 관련 분야 제품개발, 제조 및 분석역량을 갖춘 실무전문가 양성 목표
- 최첨단 하이브리드 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혁신적 교육 및 연구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생명현상 및 질병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이 가능한 글로벌 리더 배출 시스템을 운영
- 이수 모형의 다각화(소부장, 효능평가, 세포·면역공학, 전염병 진단 등)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특화된 전문인 양성과정 지원

진 로

- 신약개발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제약(의약품)분야기업, 화장품분야기업, 건강기능식품분야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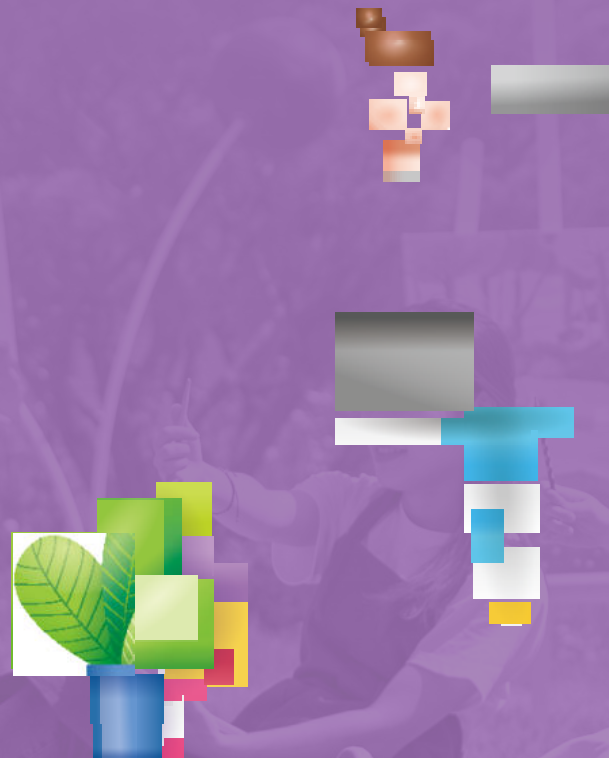
4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Ⅳ. 학습지원

고교생 연간학습전략	80
성격유형별 진로탐색	84



고등학교 3학년 연간 학습전략

입시 일정에 따른 효과적 학습 계획 세우기

형성여자고등학교 교사 하승연



◆ 고등학교 3학년 일 년간의 학습은 진학을 앞둔 만큼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진학 준비도를 확인하고 대입 전형을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전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나에게 맞는 지원 전형은 무엇일까?

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내신 성적 관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수시 전형에 집중하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3학년 수업 교과목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의 과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능과 연계하여 내신을 준비한다면 수시와 정시 전형을 고루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전형에 따른 포인트 학습 전략

입시를 앞둔 고3 시기에 학습 계획을 세울 때에는 본인의 내신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모의고사 성적, 희망 학교 및 학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전형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미리 설정한 후 학습을 이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대학 및 모집 단위에 따라 특정 과목을 지정해 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집요강을 통해 이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① 수시 중점 지원

- ➔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향상에 집중
- ➔ 적극적이고 충실한 학교생활을 기반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경쟁력 강화
- ➔ **수능 최저 있는 경우** 수능 최저 선택 영역 설정 및 해당 영역 중점 학습

② 정시 중점 지원

- ➔ 학교생활 중 수능 응시 영역 교과목 학습에 집중
- ➔ 기출문제 풀이 및 모의평가 분석을 통한 실전 감각 강화

지원 전형에 적합한
학습 전략을
생각해 보아요~



월별 학습전략

1-2월

개념과 원리 학습

부족한 학습 보완

3학년 학습활동 방향 설정하기

1-2월은 예비 고3으로서 대입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학습을 분석하고 자신이 부족한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학습이 부족하다면 겨울방학 동안 기본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고 관련 유형 풀이를 통해 기초를 다져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입시 전형 및 일정을 살펴 보며 일 년간의 학업을 개괄적으로 계획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월

개학 /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담임선생님과 진학 상담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학기 1회고사 준비

개학 이후에는 1, 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검토, 전국연합학력평가, 담임선생님과의 진학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현위치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파악하며 자신의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능 교과목의 기본이 아직 부족하다면 기본 개념학습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수능 연계 교재인 'EBS 수능특강' 문제 풀이를 병행하여 실전 감각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학교 수업 교과목의 평가 계획 및 일정을 확인하여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있을 1회고사 내신 준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월

수시 모집 요강 확인

6모 대비 학습

1회고사가 끝난 5월에는 지필평가가 끝나며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학업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회고사 성적 결과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수행평가 및 2회고사에 대비한 학습 계획을 세워 수시 전형 지원을 위한 내신 성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대학이 5월 말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하므로 관심 대학 모집요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전형 지원의 유불리를 비교 점검하며 자신의 학업 방향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요건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월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1학기 2회고사 준비

6월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실시됩니다. 6월 모의평가는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응시하며 수능 출제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평가입니다. 모의평가를 실전처럼 준비하면 결과를 더욱 의미있게 분석하여 입학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응시하는 영역의 기본 개념과 유형을 점검 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시 전형을 중점으로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2회고사 대비를 철저히 하여 수시 전형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8월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6모 결과에 따른 지원 전략 점검

수능준비 전념

여름방학

7-8월은 3학년 1학기 평가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우선 6월 모의평가 성적 확인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원 전형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수시 전형에 지원하거나 정시 전형에 중점을 둔 경우라면, 6월 모의평가 및 과거 기출 문항에서 본인이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다른 수능 연계 교재인 'EBS 수능완성'이 일반적으로 6월 중 출시되므로 수능특강 학습을 마친 학생이라면 수능완성 풀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며 문제해결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9월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수시 원서접수

정시 모집요강 확인

2학기 1회고사 준비

9월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실시됩니다. 6월 모의평가보다 더 많은 졸업생들이 응시하므로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입시 및 학습 전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9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수시 원서접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채점을 통해 과년도 입시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짜야 합니다. 수시 원서접수가 끝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본격적인 실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 문항 분석을 통해 오답 문항 및 고난도 유형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에 맞게 기출문제 풀이를 하며 시간 관리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10-11월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능 전 마무리

2학기 2회고사 준비

10-11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새로운 학습 방법을 시도하거나 그전에 다루지 않았던 고난도 유형 풀이 등 큰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틀렸던 유형을 재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수능 시간표에 따라 생활 패턴을 조정하여 수능 시험 시간에 따라 신체 리듬을 맞추며 실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시기이므로 컨디션 관리 또한 중요한 학습 전략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은 필수입니다.

※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학습 전략 3

1. 매일매일 모든 과목 살펴보기

매일 각기 다른 과목을 학습하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모든 수능 응시 영역 학습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매일 매일 학습을 쌓아나가고 문제 풀이의 감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2. 오답노트 만들기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헛갈렸는지, 어떤 유형을 내가 반복적으로 틀리는지를 정리하며 내가 취약한 부분에 부딪혀보세요. 오답 유형을 정복하는 것이 학습의 핵심입니다.

3. 스트레스 관리

고3 수험생활에 있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큰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오는 입시에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학습 전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입시 부담은 잠시 내려놓고 작은 것이라도 나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을 해보세요. 학습에 있어서 편안한 휴식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MB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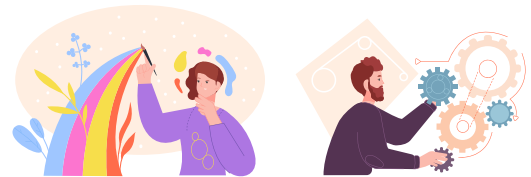
성격유형을 활용한 전공·진로탐색

관계의 도구 지금 당장 MBTI 저자 이주희



MBTI

미래의 행복한 나를 위해 과거의 나에게 건네는 질문



에너지의 방향
외향형(E) ↔ 내향형(I)

인식기능(정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의 차이)
감각형(S) ↔ 직관형(N)

판단기능(의사결정을 하거나 결론에 이르는 방법의 차이)
사고형(T) ↔ 감정형(F)

생활양식(살아가는 삶의 방식 차이)
판단형(J) ↔ 인식형(P)

나의 더 나은 미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면 미래의 나와 편지를 주고받자. UCLA의 심리학자 할 허쉬필드(Hal Hershfield)는 미래의 자기 연속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과정을 수행한 학생들이 진로 계획이나 학업을 위해 더 나은 면모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편지를 쓰고, 다시 미래의 나에게 답장을 보내는 과정을 통해 미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려볼 수 있다.

나의 성격유형을 찾기 위해선 과거의 나에게 질문을 건네야 한다.

나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지? 외부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나? 아니면 나의 내부에 집중할 때 더 에너지가 생겼었나?

나는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지? 세부사항이나 사실에 집중하나? 전체적인 상황이나 아이디어에 집중하나?

또 나는 결정할 때 어떻게 하지?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편인가? 아니면 감정이나 느낌이 우선 시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결정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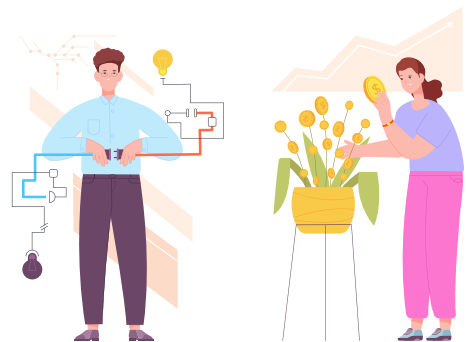
그리고 나는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갖고 있나? 아니면 목적과 방향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융통성 있는 삶을 더 선호하나?

‘미래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 때 편안함을 느꼈었지?’라고 과거의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MBTI의 핵심은 나는 어떤 것을 좀 더 선호하는가다.

이러한 4가지 선호성을 MBTI 선호지표라고 하며, 누구나 4가지 선호지표 중 하나씩을 좀 더 선호하며 살아간다.

MBTI 성격유형검사는 오랜 시간 연구되어 더 많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간단히 이렇게 질문해보는 것으로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묻고 답해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이 씨앗이 되어 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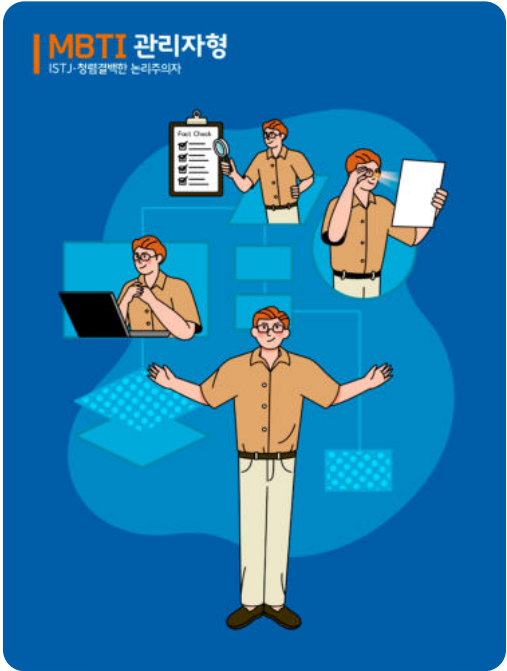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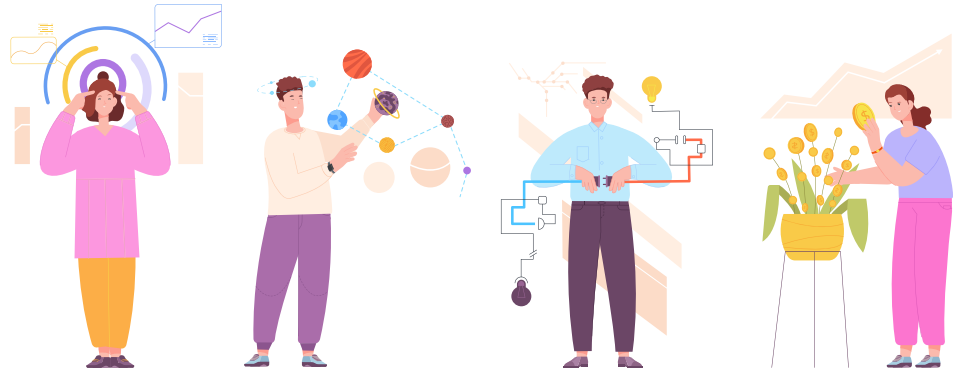
MBTI의 이론적인 토대를 만든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은 사람의 심리 유형을 3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했다.

첫째, 사람마다 '태도'에 있어 개인차가 있다.
둘째, 사람마다 '선호하는 인식 양식'의 개인차가 있다.
셋째, 사람마다 '선호하는 판단 양식'의 개인차가 있다.
융은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사람의 심리 유형이 만들어진다고 주장을 했고, **인간이란 성격 유형에 따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각각은 매우 독특하고 개별적인 존재라 했다. 각 유형은 본연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특정 상황에서 뛰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독특하고 개별적인 존재이며 특정 성격의 뛰어남을 갖고 있기에 그 뛰어남이 무엇인지 탐색해본 후 전공을 선택한다면 원하는 목표나 성공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최소한 자신의 약점과도 같은 것을 주로 수행해야 하는 진로

분야라면 선택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MBTI 성격유형은 주삿바늘을 찔러 혈액을 뽑아보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혈액형처럼 정답이 짠 하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나의 성격유형을 탐색하고 최적유형(검사결과 유형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해석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결정하는 Best-Fit Type)을 찾는다면 미래의 나와 나는 대화 속 그려진 멋진 모습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MBTI를 진로나 전공선택에 활용하려면 성격유형, 주기능, 심리적 기능, 심리적 기질 등 다양한 구분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그중 MBTI 검사를 만든 캐서린 쿡 브릭스(Katharine Cook Briggs)와 이사벨 마이어스(Isabel Briggs-Myers)는 인식기능과 판단기능의 조합인 심리적 기능이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며 개인의 진로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MBTI를 만든이의 가이드를 따라가 보며 나에게 적합한 전공이나 진로는 어떤 분야일지 알아보자.

심리기능 구분	ST	SF	NF	NT
성격유형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 성격은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 중 일부일 뿐이다. 개인의 성격과 흥미, 역량과 가치관 등에 따라 적합한 진로를 찾아가는 탐색과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추천하는 계열은 단순히 성격의 특징만을 고려한 것임을 밝히며, 혹시 추천계열에 자신의 성격유형이 없다고 선택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격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추천하는 계열들의 특징을 연결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ST - ISTJ, ISTP, ESTP, ESTJ

생산성을 추구하는 ST유형은 '사실'에 관심을 둔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고, 듣고, 만지고, 세고, 무게를 재고, 측정하는 등의 감각을 통해 수집하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집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편이다. 이들은 원인에서 결과, 가정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 논리적 추리 과정을 선호한다.
ST유형의 사람들은 경제, 법률, 외과 의사, 회계, 생산, 기계나 재료의 조작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 ST유형 추천계열

경영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SF - ISFJ, ISFP, ESFP, ESFJ

인간성을 추구하는 SF유형은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개인의 주관성이나 개인적인 온정을 바탕으로 한다. 감정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사물에 대한 사실 보다는 사람에 대한 사실에 더 큰 관심이 있다. 그래서 동정적이고 우호적이다. 구체적 상황과 자기의 온정을 펼칠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 SF유형의 사람들은 판매, 친절한 서비스업, 교직(특히 초등교육), 간호, 소아과 의사, 환자를 직접 돌보는 보건분야에서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 SF유형 추천계열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인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NF – INFJ, INFP, ENFP, ENFJ

진실을 추구하는 NF유형은 의사소통에 재능이 있으며, 사람들의 가능성을 촉진시키는 일에 능력을 발휘한다. 이들은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며, 자신의 존재를 찾고자 하는 열정적이고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말이나 문자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다. 자신들이 본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이 가진 가치를 전달하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다. 이들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잘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휘하기도 하며 다양한 사람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또 이들은 인간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을 수 있다. 규칙이나 지시가 최소한으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일을 잘하는 편이다. NF유형의 적성분야로는 고등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가르치는 일이다.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나 무형 자원의 판매, 상담이나 집필, 연구 등의 분야에서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 NF유형 추천계열

융합학과군,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NT – INTJ, INTP, ENTP, ENTJ

NT유형은 무엇이 진리인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독창성을 발휘하는 일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등의 가치관을 추구한다. 판단할 때 사고의 객관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가능성이나 이론적인 관계, 추상적인 양식에 초점을 맞추지만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이며 영리한 편이다. 과학적인 연구나 수학, 복잡한 것을 정리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분석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특성이 있다. 특히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문제해결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 NT유형의 적성분야로는 연구직, 수학자, 기술직, 과학이나 이론적인 분야, 관리직, IT 등의 일이다.

• NT유형 추천계열

자연과학대학, 전자정보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융합학과군



MBTI, 성격유형을 활용하여 전공·진로탐색을 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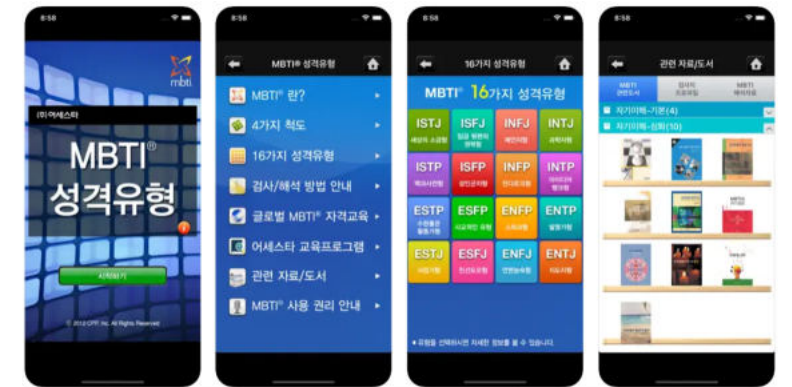
자기다움에서 찾는 진로는 행복을 가져다주고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선물해준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한 번쯤은 MBTI 정식 검사를 통해 자신의 최적유형(Best-Fit Type)과 참유형(True Type)을 찾아보기를 희망한다.



참고자료

어세스타 제공 MBTI 성격유형 소개 APP

MBTI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징 및 선호직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참고도서

관계의 도구 지금 당장 MBTI / 브레인레오 / 이주희 외
MBTI Form M 매뉴얼 / 어세스타 / 김정택, 심혜숙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Vol. 07

충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충북대학교 수시·정시 모집요강,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TUBE 충북대학교 입학정보



충북대학교 입시정보 뿐만 아니라 홍보
영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